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국립국어원

머리말

정부 각 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알리고,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국민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혹은 각 기관이 누리집에 게시한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은 대체로 정부에서 만든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는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자료에 사용된 말이 쉽고 정확해야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정부 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 자료의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고 난해할 뿐 아니라 어문규범에도 맞지 않는다면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도 자료를 조사하여 그 실태를 알아본 결과 언어 사용이 우수한 기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공무원들이 가까이 두고 언제나 참고할 수 있는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은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작성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면 정부 기관에서 작성하는 보도 자료가 훨씬 바르고 알기 쉽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정부 기관에서 보도 자료를 정확하고 바르게 작성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바르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일러두기

01

이 책에서 예문으로 사용한 보도 자료는 실제 각 기관에서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더하거나 빼고 또는 고쳐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보도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02

보도 자료 양식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실제 기관명이나 작성자를 밝히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국립국어원으로 표시하였다.

03

보도 자료 본문에 사용된 실제 기관명이나 실명 역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밝히지 않았다.

차 례

| | | | | |
|----|-------------------------|-----|-------------------------|-----|
| 01 | 보도 자료란? | 7 | 01. 공공언어로서의 보도 자료 | 8 |
| | | | 02. 보도 자료 알아보기 | 9 |
| | | | ① 크게 보기 | 9 |
| | | | ② 자세히 보기 | 14 |
| 02 | 사례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 25 | 01. 공공언어 진단 기준 | 26 |
| | | | 02. 정확성 | 27 |
| | | | 03. 소통성 | 52 |
| 03 | 피해야 할 외국어 · 한자어 | 87 | 01. 외국어 | 88 |
| | | | 02. 한자어 | 93 |
| | | | 03. 외국어와 한자어 사용 시 유의할 점 | 96 |
| | 〈부록〉 | | | |
| 04 |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해 도움 받을 곳 | 103 | 01. 국립국어원 발간 자료 | 104 |
| | | | 02. 국립국어원 누리집 이용 | 104 |
| | | | 03. 국어문화원 | 105 |
| | | | 04. 국어문화학교 | 107 |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보도자료 쓰기
길잡이



01

/ 보도 자료란?

공공의
책임

01

공공언어로서의 보도 자료

1. 보도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2. 보도 자료

언론 매체에 보도될 목적으로 언론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 일반 대중이 아니라 언론 기관의 기사를 1차 수신자로 함.

3. 공공언어로서의 보도 자료

보도 자료는 작성 후 행정 기관의 누리집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공개된다는 점에서 보도 자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공공언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보도 자료에서 사용되는 언어 역시 공공언어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p.26 [표 2] 참조)을 만족시켜야 함.

※ 공공언어: 공공기관에서 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

4. 보도 자료의 유형

정보 공개형

연구, 조사, 수사 등의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

정책 및 행사 홍보형

회의나 행사 등에 대해 알리고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작성

입장 표명형

특정 사안과 관련한 공공 기관의 입장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작성

02

보도 자료 알아보기

1. 크게보기

[표 1] 보도 자료의 형식

| | |
|-------|---|
| 기본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신 정보 담당 부서,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누리집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자료 정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 자료의 분류 표시(정보 공개형, 홍보형, 해명 자료나 참고 자료인지 명기)- 보도 자료의 분량, 첨부 파일 여부- 보도 자료의 배포 일시- 보도 자료의 보도 일시(언론에 보도될 날짜)- 보도 시 유의사항 |
| 내용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표제와 부제)• 요약문• 본문 내용(리드(lead) 포함) |
| 부가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세 내용의 붙임 자료• 사진 등의 시각 자료 |

- 해명을 하는 보도 자료의 경우 본문의 내용은 '보도 내용'과 '해명 내용'으로 구성
- '부가 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하는데,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설명

| | | |
|---|-----------------|---------------------|
|  | 보도 자료 | |
| | 2011년 12월 9일 배포 | 2011년 12월 12일 조간 보도 |
| | 총 1쪽, 붙임 : 2쪽 | 담당: 학예연구사 ○○○ |
| 전화 : 02) 1234-5678 / 전송 : 8765-4321 / 전자우편 : gildong@korea.kr | | |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한 나눔천사들

- 연말을 맞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감동적인 나눔을 실천한 '이달의 나눔인' 18명 선정 -

- ○○○(장관 ○○○)는 12월 9일(금) 14시 30분 ○○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이달의 나눔인' 18명에게 ○○○ 장관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 '이달의 나눔인'은 우리 사회의 숨은 나눔인을 발굴하고 아름다운 나눔 실천 사례들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 올해 2월부터 노블레스오블리주, 생명나눔, 재능기부 등 매월 주제를 정하여 우수 나눔실천자를 시상해 왔다.
- 이번 달에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꺼이 본인의 시간과 자산을 나눈 사람들을 관련 기관, 언론 등의 추천을 받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붙임2 참고)
- ○○○부 ○○○장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진정한 나눔을 실천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 "연말연시가 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아지는데,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본받아 나눔의 손길이 널리 퍼져나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1. 이달의 나눔인 포상 행사 계획
붙임 2. 이달의 나눔인 포상 대상자 및 공적 사항

[그림 1] 보도 자료의 형식



보도 자료

| | | |
|------------------------|-----------|---------|
| 제공일 : 2011. 4. 28. | 과 장 : *** | 쪽 수: 2P |
| 제공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 사무관 : *** | 별 첨: 없음 |
| 전 화 : 031-***-**** | | |

이 자료는 2011년 4월 29일 배포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2] 기본 정보

[그림 2]는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생산하는 보도 자료의 기본 정보 부분인데, 대개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보도 자료에 들어 있다. 보도 자료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되는지를 밝힌다. 또한, 보도 자료의 분량, 배포 일시, 첨부 파일 여부 등도 안내되어 있다. 나아가 언론에 보도 될 날짜를 명기하고 있다. 이 사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보도 자료의 분류 표시(정보 공개형, 홍보형, 해명 자료, 참고 자료 등)를 기본 정보에 표시하거나 보도 시 유의 사항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

우수기능인의 기능·노하우 특성화고 재학생에 전수

- 6개 광역소재지 공업고 계열 공동실습소에서 '우수기능전수사업' 실시 -

-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우수기능인이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능·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우수기능전수사업'을 지원
 - 동 사업은 우수기능인이 생산현장에서 체득한 기능 및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사장화를 방지하고,
 -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그림 3] 내용 정보

[그림 3]은 중소기업청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 중 '내용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신문 기사 작성이나 뉴스 보도 생산을 고려하여 표제와 부제로 구성된 제목을 제시하고 있고, □, ○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 보도 자료에서는 완전한 문장을 사용해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에 번호나 기호를 붙여가며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개조식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의>

보도 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하는 것이 좋음

○○○ 충남지사는 이날 “앞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생태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기반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히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강제적 협력보다는 기업간의 자율적인 실천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동반성장협의회가 대·중소기업간의 대화와 소통채널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주길 기대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보도관련 사진 자료〉



[그림 4] 부가 정보

[그림 4]는 충청남도청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 중 부가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보도 자료에서는 충청남도청의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 소식을 전하며, 몇 장의 사진 자료를 부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가 정보에서는 내용 정보에서 담아 내지 못한 상세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여 붙임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2. 자세히 보기

① 정보 공개형 보도 자료

- 공공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 조사, 수사 등의 결과를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작성.
- 대체로 보도 자료 작성 전에 이미 완성된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만들어짐.
- 본문에서는 핵심 내용만 다루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붙임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음.

<정보 공개형 보도 자료 제목>

- 2011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학원 특별지도·점검 결과
- 한·미 외교장관회담(4.16) 결과
- 통일 및 대북문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 한국, 전통주 경쟁에서 일본 추월
- 설 연휴기간 기상전망
- 외평채 2조5천억 산업금융채권 1190억 위조 사기단 적발
- 불량 식자재를 대형식당에 판매한 업체 적발
- 10·26 재·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평균 3.9대 1
- '11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현황조사'용역결과 발표



보도 자료

| | |
|---|--------------------------|
| 2011년 6월 25일 배포 | 2011년 6월 28일 00:00 이후 보도 |
| 총 2쪽, 붙임 :3쪽 | 담당 : 학예연구사 000 |
| 전화 : 02) 1234-5678 / 전송 : 8765-4321 / 전자우편 : gildong@korea.kr | |

○○시, ○○○ 서비스에 대한 기업 만족도 최고 !

- “2011 ○○○ 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 발표 -


- ○○○부는 ○월 ○일(월),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 지자체의 ○○서비스에 대한 투자기업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 ○○시가 투자기업으로부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 ○○군이 차지하였다.
-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자체의 투자유치 서비스에 대해 수혜기업이 느낀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자체의 우수 행정사례를 전파하여,
 - 지자체의 투자유치 서비스 질 향상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 기획하고, ○○○○이 주관하여 조사하였다.

2011 ○○○서비스 만족도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1.5.1 ~ 5.31 (31일간)
- 조사대상 기업
 - 최근 3년간 공장 신·증설 경험이 있는 제조업체중 4,000개사를 표본 선정 (다만, 설문회수가 15개 미만인 지자체에 할당된 표본 등은 제외)
- 평가대상 지자체 : 비수도권 88개 기초 지자체
 - ※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 지자체중 신증설 사례가 20건 이상인 지자체로서 설문회수가 15건 이상인 지자체
- 평가방법 : 12개 항목에 대하여 객관식 설문(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7점)
- 조사방법 : 이메일, 팩스, 전화조사

[그림 5] 정보 공개형 보도 자료(1)

[그림 6]은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정보 공개형 보도 자료의 예시이다. 4월 16일에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회담의 구체적 맥락과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 | |
|---|-----------------------------------|
|  | <h2 style="margin: 0;">보도 자료</h2> |
| 2011. 4. 16(토) | 제11-328호 |
| 담당부서 : 북미국 공보, 홍보담당관 | 담당 : 북미국 심익관 ○○○ |
| 전화 : ***-***-**** | |

한 · 미 외교장관회담(4.16) 결과

1. ○○○ 외교통상부 장관은 4.16(토) 오후 장관 공관에서 ○○○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전략동맹 강화방안, 한·미 FTA, 북핵,북한문제, 일본지진 등 지역,범세계적 문제에 관해 협의하였다.
2. ○ 장관과 ○○○ 장관은 한미 FTA가 양국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정치,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양국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전자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한미동맹 재조정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 공고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북핵문제 관련 그간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6차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등 사전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UEP가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위반이며, 이에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자신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그림 6] 정보 공개형 보도 자료(2)

또한 [그림 7]은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정보 공개형 보도 자료의 예시이다. 기획재정부에서 '2011 나라살림 예산 개요'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 책자가 지니는 의의, 담고 있는 내용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 | |
|---|---------------------------|-----------------------|
|  기획재정부 | 보도 자료 | |
| | 보도일시 : 2011. 3. 11(금) 배포시 | 배포일시 : 2011. 3. 11(금) |
| | 담당부서 : 예산실 예산관리과 | 담당 : ○○○ |
| | 전화 : ***-***-**** | |

「2011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011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하였다.
 - 2011년 예산을 편성한 정부내 실무담당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11년 나라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 본 책자는 201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에서부터 2011년도 나라살림,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까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 제1부 201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에서는 '공정한 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확대, 미래 성장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통해 품격 있고 성숙한 국가로 도약하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 제2부 2011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나라살림 규모, 재정 운용방향, 분야별 투자계획의 내용과 특징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 특히, 제2장에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24대 중점 추진과제가 소개된다.
 - 서민희망 예산으로서 보육·교육·주거안정·장애인·노인·저소득층·다문화 가정 등 8개 과제의 주요 수혜자별로 크게 늘어나는 지원 내용과
 - 미래대비 예산으로서 신성장동력 육성·해외시장 개척·4대강 살리기·기후변화 대응·농업 경쟁력 강화·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8개 과제에 대한 투자계획이 요약·설명된다.

[그림 7] 정보 공개형 보도 자료(3)

② 정책 및 행사 홍보형 보도 자료

- 공공 기관에서 개최하는 회의나 행사 등에 대해 널리 알리고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작성

〈정책 및 행사 홍보형 보도 자료 제목〉

- 재한외국인 생활체험 수기 및 이민정책 우수논문 공모
- 문화부·방통위, 제1차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개최
-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한식 푸드쇼' 개최
- 남동국가산업단지 QWL 벨리 지역협의체 출범
-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 통계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확대
-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1.24.부터 시행
- 참여하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퀴즈!
- 인천시,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공직자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금 전액 환수 추진



보도 자료

2011년 9월 3일 배포

2011년 9월 4일 00:00 이후 보도

총 1쪽, 붙임 : 0쪽

담당 : 학예연구사 000

전화 : 02) 1234-5678 / 전송 : 8765-4321 / 전자우편 : gildong@korea.kr


제15회 『000포럼』 개최

- “생각지도 못한 HRD 생각지도와 생각의 지도” -

- 000부(장관 000), 000연합회(회장 000), 000개발원(원장 000)은 9월 2일(목) 오전 7시 00호텔에서 “생각지도 못한 HRD 생각지도와 생각의 지도”를 주제로 제15회 000 포럼*을 개최하였다.
 - *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미래 00개발 및 R&D 관련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000부, 000연합회, 000개발원이 공동주최하는 정례 포럼으로 2005년부터 격월로 개최
-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한 000교수*는 사회는 큰 사회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메가트렌드(Mega Trend)에 의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트렌드(Micro Trend)가 생각지도 못한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 진정한 학습은 거시적 환경 변화의 추세를 주목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성찰할 때 완성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오늘날은 새로운 기술적 혁명*에 의해 스마트 기술(Smart Technology)이 주도하는 기술변화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나, 이것이 인간적 스마트(Smart Human)를 보장해주지는 않으며,
 - 도구의 확장으로 인해 효율성은 증가하였으나, 도구에 맡긴 인간의 능력은 점점 퇴화되고 있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는 ‘사색의 비효율성’도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림 8] 정책 및 행사 홍보형 보도 자료(1)

[그림 9]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성한 정책 및 행사 홍보형 보도 자료의 예시이다. '한식 푸드 쇼'라는 행사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관으로 개최하였는데, 이 행사의 개요, 내용, 의의 등에 대해 소개하며 농림수산식품부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 | | |
|---|------------------------|-----------------------|
|  | 보도 자료 | |
| | 제공일 : 2011. 4. 27. | 2011년 4월 28일 조간 이후 보도 |
| | 제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 진흥팀 | 담당 : 사무관 ○○○ |
| | 전화 : ***-***-**** | 주소 : 쪽수 2P, 별첨자료 1P |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한식 푸드쇼' 개최

- 국내 정상급 셰프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한식요리로 참관객 사로잡아 -


- 한식의 맛과 멋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내 정상급 셰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식재단을 통해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2011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한식 홍보관」 운영한다.
 - 이번 한식 홍보관은 기존 보기만 하는 요리 전시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정상급 셰프 4명이 4일간 각각 다른 주제를 한식을 독특한 스토리와 퍼포먼스로 요리하여 서울국제식품산업대에 참여하는 해외 식품관계자 및 외국인 참관객들의 시선과 입맛을 사로잡는다.
 - 4.26일 첫 번째 한식 푸드쇼에는 드라마 '식객'의 음식감독이었던 푸드앤 컬처 아카데미의 김수진 원장이 '봄 내음 가득한 잘 차려진 밥상'이라는 주제로 각종 봄나물과 한우 불고기 등을 선보였으며,
 - 이날 푸드쇼에 이어 봄나물을 시식해본 외국인들은 '샐러드와는 또다른 독특한 맛이다. 자연 그대로를 맛보는 기분이다. 한식이 건강식인 이유가 나물에 있었다' 등 모두가 색다른 한식의 맛에 즐거워하는 반응이었다.
 - 한식 푸드쇼는 4.29일까지 매일 셰프들이 각자의 요리를 선보일 계획이며, 특히, 4.29일에는 비빔밥을 소재로 한 난방 퍼포먼스 '비빔 코리아' 공연도 계획되어 있어 관람객에게 또다른 재미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 푸드쇼 일자별 진행 내용

| 일자 | 담당 셰프 | 주제 및 내용 |
|-----|-----------------|---|
| 26일 | 김수진 원장 | "봄 내음 가득한 잘 차려진 밥상" - 각종 봄 나물과 바삭불고기 |
| 27일 | 올리비아(이영희) & 이주형 | "사랑을 부르는 한식" - 새롭게 변신한 우리나라 전통 '전' - 인삼 특제 소스를 가미한 갈비찜 스테이크 - 막걸리 푸딩 |
| 28일 | 샘킴(김태희) | "4월 한국의 바다를 맛보며 드립니다." - 해산물 갯잎 감자 수제비 - 피레 소스와 삼치 구이 |
| 29일 | 양지훈 | "한식에 꽃을 피우다." - 메일을 이용한 냉면 - 그림같은 비빔밥 |

[그림 9] 정책 및 행사 홍보형 보도 자료(2)

또한 [그림 10]은 지식경제부에서 작성한 홍보형 보도 자료의 예시이다. 남동 국가 산업단지 QWL 밸리 지역 협의체라는 새로운 협의체가 출범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출범식의 개요, 협의체 출범의 의의, 협의체를 통한 주요 사업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로써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를 홍보하고 있다.

| | |
|---|-----------------------------------|
|  | <h2 style="margin: 0;">보도 자료</h2> |
| 제공일 : 2011. 4. 27. | |
| 제공자 : 입지 총괄과 담당 : 사무관 ○○○ | |
| 전화 : ***-***-**** | |

남동국가산업단지 QWL 밸리 지역협의체 출범

- 지식경제부는 4. 28일(목) 10: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QWL 밸리*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출범하였음**
 - *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산업단지로서,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공간
 - 출범식에는 지식경제부(김경수 지역경제정책국장),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회장 김덕배)를 비롯한 경영자 대표, 지자체, 교육계, 금융계, 경제단체 등 14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였음
- 남동국가산업단지는 QWL 밸리 시범단지*로서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편익·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 '09. 12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국가산업단지 선정
 - 금번 지역협의체는 QWL 밸리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확산하고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QWL 밸리 시범사업 주요내용

- **남동** : 공동물류센터, 화물주차장, 차량정비센터, 근로자복지타운, 주유소, 지식산업센터 등을 설치하고 우수지 환경을 개선(약 3,200억원)
- **반월·시화** : 오피스텔, 종합비즈니스센터, 근로자 복지타운, 자전거 도로, 주유소 등을 설치하고 가로·하천 정비(약 6,600억원)
- **구미** :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기숙사, 특화거리, 체육시설 등 설치(약 3,600억원)
- **익산** : 근로자 기숙사를 건설하며(180억원) 추가사업 발굴 추진

* '10. 11~13. 6월간 지자체가 2천억, 민간이 3천억, 산단공이 8천억 등 투입 예정

[그림 10] 정책 및 행사 홍보형 보도 자료(3)

③ 입장 표명형 보도 자료

- 특정 사안과 관련한 공공 기관의 입장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작성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고 이에 관해 해명하려는 의도로 작성되는 해명성 자료도 포함

〈입장 표명형 보도 자료 제목〉

- “한-베트남 정상회담 중 원전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 “배추값 폭락...속타는 농심”보도, 사실과 달라
- ‘무상급식에 밀린 학교 노후시설 개선비’ 보도 관련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특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4대 강 사업비 만들려 국민 체육 희생하나, 생활 체육 투자 절반 이상 줄여’ 보도 관련
- 한국일보(7.15일) 보도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올린 여성부’ 관련 해명자료
- 우리 음식 이름이 빠진 공허한 한식 세계화 보도 관련 설명
- “신경성형술 ... 효과 논란” 보도 관련 해명자료
- 보금자리주택 계획대로 추진
- 보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가 침수된 것이 아님



보도 자료

| | |
|---|-------------------------|
| 2011년 2월 9일 배포 | 2011년 9월 4일 00:00 이후 보도 |
| 총 1쪽, 붙임 : 0쪽 | 담당 : 학예연구사 ○○○ |
| 전화 : 02) 1234-5678 / 전송 : 8765-4321 / 전자우편 : gildong@korea.kr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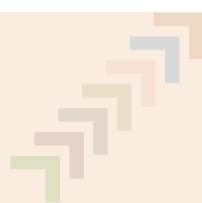
“염분가득 소금모래 유통” 보도 관련

- 골재채취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채취한 바닷모래는 매립, 콘크리트생산 등에 사양하게 사용되며, 사용목적에 맞게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음
 - 예를들면 매립용은 세척 등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며
 - 콘크리트생산용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함
- * 한국산업표준규격(KSF 2526)에는 염분농도를 0.04%로 규정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콘크리트 생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KS규격에 적합한 염분농도**를 가진 모래에 대한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고 사용
- 앞으로 ○○○부와 협의하여 KS규격에 적합한 바닷모래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보도내용(MBC 9시 뉴스데스크, 12.5)

- “염분가득 ‘소금모래’ 유통... 내구성 ‘뚝’ 안전위협”
 - ○○○앞바다에서 채취된 바닷모래가 세척이 안된채 **염분이 많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건물의 안전에 위협**

[그림 11] 입장 표명형 보도 자료(1)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보도 자료 쓰기

02

/ 사례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미디어

01 / 공공언어 진단 기준

보도 자료는 1차적으로는 언론 매체에 보도될 목적으로 언론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이지만 행정 기관의 누리집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보도 자료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공공언어에 속한다. 따라서 보도 자료의 언어 역시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표 2] 공공언어 진단 기준 (국립국어원, 2010)

| | | |
|-----|---------|--------------------------|
| 정확성 | 표기의 정확성 | 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
| | | ② 띄어쓰기를 잘 하였는가? |
| | | ③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
| | 표현의 정확성 | ④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
| | | ⑤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
| | | ⑥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
| 소통성 | 공공성 | ①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
| | | ②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
| | | ③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
| | 정보성 | ④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
| | | ⑤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
| | | ⑥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
| | 용이성 | ⑦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
| | | ⑧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
| | | ⑨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 한글 맞춤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오자(誤字) 및 오기(誤記)
-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한 경우
 - 낱짜 표기 시 ‘일(日)’ 뒤에 온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 불필요한 가운뎃점 사용(예: 입구·출구 → 입출구) 등
 - 하나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뎃점을 사용한 경우
(예: 시·도 → 시도, 육·해·공군 → 육해공군)
- 아라비아 숫자를 잘못 사용한 경우 (예: 2차레 → 두 차레)

(가) ‘로써 / 로서’의 표기

(으)로서(자격) →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수단) → 닭으로써 껍을 대신했다.

교정 전

인천은 사통팔달의 광역도로망 구축
이 완료됨으로서

교정 후

인천은 사통팔달의 광역 도로망 구축
이 완료됨으로써

보충 설명

발음이 유사한 단어들을 구별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로써/로서’는 자주 오류를 범하는 단어들이다. ‘로서’는 ‘자격’의 의미로, ‘로써’는 ‘수단’의 의미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역도로망 구축 완료’는 ‘자격’이 아닌 ‘수단’의 의미이므로, ‘광역 도로망 구축이 완료됨으로써’로 써야 한다.

(나) ‘을/를’

받침이 있는 말 뒤에서는 ‘렬, 률’, 받침이 없는 말이나 ‘ㄴ’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열, 율’로 적는다.

| | | | |
|--------|--------|--------|----------|
| 나열(羅列) | 선열(先烈) | 규율(規律) | 전율(戰慄) |
| 분열(分裂) | 비열(卑劣) | 선율(旋律) | 실패율(失敗率) |
| 치열(齒列) | 진열(陳列) | 비율(比率) | 백분율(百分率) |

교정 전

적격구직자만 선별 알선하여 **매칭을** 제고

보충 설명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을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따라서 ‘매칭’은 단어 첫머리 이외이면서 모음이나 ‘ㄴ’ 받침 뒤가 아니므로, ‘**매칭률**’로 적어야 한다.

교정 후

적격 구직자만 선별 알선하여 **매칭률** 제고

(다) '년도/연도'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여자(女子) 유대(紐帶) 연세(年歲) 이토(泥土) 요소尿素 익명(匿名)

→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교정 전

“시설년도가 오래되고 노후화된 보수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 지해 취약시설부터 순차적인 보수·보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충 설명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년도'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시설 년도'로 띄어 써야 하고, '연도'는 독립된 단어이므로 '년도'가 아니라 '연도'로 적어야 한다.

교정 후

“시설 연도가 오래되고 노후화된 보수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 지해 취약 시설부터 순차적인 보수·보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 문장 부호의 표기

(1) 온점의 표기

→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집으로 돌아가자.

<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압록강은 흐른다(표제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

1919. 3. 1. (1919년 3월 1일)

→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

1. 마침표 ㄱ. 물음표 가. 인명

→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서. 1987. 3. 5. (서기)

☑ 교정 전

10.18(화)

☑ 보충 설명

☑ 교정 후

10. 18. (화)

한글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에 따르면 ‘온점’은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사용하는데, 이때 ‘연월일’ 다음에 모두 온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운뎃점(·)의 표기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 **쉽게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구에서 2 명씩 국회 의원을 뽑는다.

→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교정 전

- 월 초·말
- 입출구
- 좌·우
- 융복합
- 여·야
- 실·국·과장급
- 육·해·공군

교정 후

- 월초·월말
- 입구·출구
- 좌우
- 융합·복합
- 여야
- 실장·국장·과장급
- 육해공군

보충 설명

가운뎃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데, 쉽게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사용한다. 따라서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서 가운뎃점을 사용할 때는 단어 일부가 중복된다고 하여 가운뎃점을 생략하지 않고, '여야, 좌우'처럼 '한 단어'인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띄어쓰기를 잘 하였는가?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것은 보도 자료를 비롯한 공공언어 전 영역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오류 유형으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 | | |
|-------|--------|---------|--------|
| 한 개 | 소 한 마리 | 조기 한 손 | 집 한 채 |
| 차 한 대 | 옷 한 벌 | 연필 한 자루 | 신 두 켤레 |
| 금 서 돈 | 열 살 | 버선 한 족 | 북어 한 쾌 |

-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 | |
|-----------|--------------|-----|
| 두시 삼십분 오초 | 1446년 10월 9일 | 80원 |
| 제일과 | 2대대 | 10개 |
| 삼학년 | 16동 502호 | 7미터 |
| 육층 | 제1실습실 | |

| | |
|---|--|
| <p>교정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개동 • 76억원 • 50만평 | <p>교정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개 동 • 76억 원 • 50만 평 |
| <p>보충 설명</p> <p>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은 띄어 쓴다. 따라서 ‘동, 원, 평’ 등의 단위 명사는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한다.</p> | |

(나)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은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 교정 전 | ✔ 교정 후 |
|---|--|
| 한자어 의존 명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시 • 교통수단간 • ‘수소충전소’등 • 50여점 • 400여명 • 9천대 • 1일차 • 부총리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시 • 교통수단 간 • ‘수소 충전소’ 등 • 50여 점 • 400여 명 • 9천 대 • 1일 차 • 부총리 겸 |
| 순 우리말 의존 명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수 있고 • 노인분들께 • 지원을 한바 있으며 • 25년만에 • 발효된지 • 예정인만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 수 있고 • 노인 분들께 • 지원을 한 바 있으며 • 25년 만에 • 발효된 지 • 예정인 만큼 |
| ✔ 보충 설명 | |
| <p>의존 명사는 띄어 쓰므로 한자어계 의존 명사 ‘시(時), 간(間), 등(等), 점(點), 명(名), 대(對), 차(次), 겸(兼)’과 고유어계 의존명사 ‘수, 분, 바, 만, 지, 만큼’ 등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p> | |

(다) 호칭어, 관직명의 띄어쓰기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 | |
|----------------------|-----------------|----------------------|
|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 박동식 박사 총무공 이순신 장군 |
|----------------------|-----------------|----------------------|

-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 | |
|----------|----------|------------------|
| 남궁역/남궁 역 | 독고준/독고 준 |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
|----------|----------|------------------|

| | |
|---|---|
| <p>교정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모 씨 • 유승하양 • 우한균교수 | <p>교정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모 씨 • 유승하 양 • 우한균 교수 |
| <p>보충 설명</p> <p>'씨, 양, 교수' 등의 호칭어 및 관직명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p> | |

(라) '조사'의 띄어쓰기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 | | | |
|-----|-------|------|-------|-----|
| 꽃이 | 꽃에서부터 | 꽃이다 | 어디까지나 | 웃고만 |
| 꽃마저 | 꽃으로만 | 꽃입니다 | 거기도 | |
| 꽃밖에 | 꽃이나마 | 꽃처럼 | 멀리 | |

교정 전

- 등 이다
- 고속전철화 부터
- 자가용 보다
- 상품 뿐만

교정 후

- 등이다
- 고속 전철화부터
- 자가용보다
- 상품뿐만

보충 설명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므로 조사인 '이다, 부터, 보다, 뿐만' 등은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마) '하다'의 띄어쓰기

교정 전

- 처분 하는
- 발표 하였다
- 가능 하도록
- 진행 하는
- 판매 할

교정 후

- 처분하는
- 발표하였다
- 가능하도록
- 진행하는
- 판매할

보충 설명

일부 단어나 어근 뒤에 붙어서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 '-하다'는 앞말과 붙여 쓰고, 그렇지 않은 동사 '하다'는 띄어 쓴다. '처분하다, 발표하다, 가능하다, 진행하다, 판매하다'는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바) '되다'의 띄어쓰기

교정 전

- 지속 되었을

교정 후

- 지속되었을

보충 설명

일부 단어나 어근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 '-되다'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지속 되다'가 아니라 '지속되다'로 붙여 써야 한다.

(사) '데/ㄴ데'의 띄어쓰기

교정 전

-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 새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교정 후

-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존 명사)
-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새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보충 설명

연결 어미 '-ㄴ데'와 의존 명사 '데'는 구분하여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연결 어미인 '-ㄴ데'는 어간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인 '데'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아) ‘제’의 띄어쓰기

교정 전

국방부는 “지난 4월 4일까지 제 52기 남·여 ROTC 후보생 지원서를 육군에서 접수한 결과, 남성 ROTC 후보생은 3.2:1, 여성 ROTC 후보생은 7.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보충 설명

‘제(第)’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뒤따르는 단어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제 52기’가 아닌 ‘제52기’로 붙여 써야 한다.

교정 후

국방부는 “지난 4월 4일까지 제52기 남·여 ROTC 후보생 지원서를 육군에서 접수한 결과, 남성 ROTC 후보생은 3.2:1, 여성 ROTC 후보생은 7.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자) ‘밖’의 띄어쓰기

교정 전

거동이 불편하여 집밖 출입이 어려운 재가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재능 기부자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보충 설명

‘집밖’이 한 단어가 아니라 ‘집’과 ‘밖’이 각각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교정 후

거동이 불편하여 집 밖 출입이 어려운 재가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재능 기부자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차) ‘이번, 이후, 그동안, 그중, 지난해, 더욱더’의 띄어쓰기

교정 전

- 이 번에
- 이 후
- 그 동안
- 그 중
- 지난 해
- 더욱 더

교정 후

- 이번에
- 이후
- 그동안
- 그중
- 지난해
- 더욱더

보충 설명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된 ‘이번에, 이후, 그동안, 그중, 지난해, 더욱더’ 등은 붙여 써야 한다.

3.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가) 발음 [어]의 표기

교정 전

- 에어콘
- 아젠다
- 설루션
- 비전

교정 후

- 에어컨
- 어젠다
→ '의제'로 순화하여 사용
- 설루션
→ '방법, 방안'으로 순화하여 사용
- 비전

보충 설명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르면 '[어]'는 '어'에 대응하므로, '에어컨, 어젠다, 설루션'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화가 가능한 '어젠다, 설루션' 등은 '의제, 방법(방안)'의 순화어로 쓰는 것이 좋다.

(나) 발음 [시]의 표기

교정 전

- 프론티어

교정 후

- 프린티어
→ '개척자'로 순화하여 사용

보충 설명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서 '[시]'는 '어'에 대응하므로, '프론티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개척자'라는 우리말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좋다.

(다) 된소리 표기

| | |
|---|--|
| <p>교정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트(site) | <p>교정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트(site) |
| <p>보충 설명</p> <p>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로 표기한다.</p> | |

(라) 어말 [k]의 표기

-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p], [t], [k]는 받침으로 적는다.

| | | |
|------------|------------|-------------|
| gap[gæp] 갭 | cat[kæt] 컷 | book[buk] 북 |
|------------|------------|-------------|

- 짧은 모음과 [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p], [t], [k]는 받침으로 적는다.

| | | |
|-------------|--------------------|-------------|
| apt[æpt] 앵트 | setback[setbæk] 셋백 | act[ækt] 액트 |
|-------------|--------------------|-------------|

-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 | | |
|------------------|-----------------|-----------------------|
| stamp[stæmp] 스탬프 | part[pa : t] 파트 | apple[æpl] 애플 |
| cape[keip] 케이프 | desk[desk] 데스크 |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
| nest[nest] 네스트 | make[meik] 메이크 | sickness[siknis] 시크니스 |

| | |
|--|--|
| <p>교정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팀웍훈련 | <p>교정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 팀워크 훈련 |
| <p>보충 설명</p> <p>'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으므로, '산악팀웍훈련'이 아니라 '산악 팀워크 훈련'으로 표기하여야 한다.</p> | |

(마) 중모음 [ei]의 표기

교정 전

- 레크레이션을 통한

교정 후

- 레크리에이션
→ '오락, 놀이'로 순화하여 사용

보충 설명

[ai], [au], [ei], [ɔi], [ou], [auə]는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따라서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레크리에이션'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은 '오락, 놀이' 정도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좋다.

4.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가) ‘착장하다’



표준국어대사전

착장-하다(着裝--)
「동사」= 장착하다. 예) 잠수함에 미사일을 착장하다.

교정 전

쿨맵시 착장을 하게 되면

교정 후

쿨맵시 차림으로 옷을 입으면

보충 설명

‘착장하다’는 옷을 입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니므로, ‘차림’ 정도의 어휘로 대체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나) ‘전통적인’



표준국어대사전

전통-적(傳統的)
「관형사·명사」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또는 그런 것.

교정 전

전통적인 경쟁국인 일본

교정 후

오랜 경쟁국인 일본

보충 설명

일본과의 경쟁 관계가 ‘전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오랜 경쟁국’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응원하다'



표준국어대사전

응원-하다(應援--)'동사

- ① 운동 경기 따위에서,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다. 노래하기, 손뼉치기 따위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다.
- ② 곁에서 성원하다. 또는 호응하여 도와주다.

교정 전

수상자들을 **응원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교정 후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보충 설명

수상자들을 '응원한다'는 표현보다는 '**축하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5.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국어의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문장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성분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분들 간의 호응, 성분의 중복, 과도한 생략에 주의해야 한다.

- 문장 성분의 호응
 - 주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쉽다.
- 문장 성분의 생략
 - 의미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성분 생략은 국어 문장 구조의 간결성, 함축성, 경제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생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부자연스러운 어순 :
 - 문장이 길어지면 어순이 부자연스러워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잘못된 조사의 사용 :
 - 사람, 동물에 붙는 조사(‘에게’)를 무생물에 사용하거나, 무생물에 붙는 조사(‘에’)를 사람, 동물에 사용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주어·서술어의 관계를 드러내는 데 부적절한 조사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과도한 접속 :
 - 여러 문장을 과도하게 연결하면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가) 문장 성분의 호응

교정 전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 이하를 말한다.

보충 설명

'정의'하는 문장이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이란 ~인 것을 말한다.'와 같이 호응해야 한다.

교정 후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 이하인 것을 말한다.

(나) 문장 성분의 생략

교정 전

내년 2월 5일부터 1,000㎡ 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 이상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는 등록해야 하므로

보충 설명

필수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모호하게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정 후

내년 2월 5일부터 1,000㎡ 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 이상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해야 하므로

(다) 부자연스러운 어순

교정 전

이중 목간 판독을 통해 마도 3선은 ~
에 난파된 배로 확인됐다.

교정 후

이 중 마도 3선은 목간 판독을 통해
~에 난파된 배로 확인됐다.

보충 설명

문장이 길어지면서 부자연스러운 어순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문장의 주된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문장 어순에 유의해야 한다.
위 문장에서는 주어인 '마도 3선'을 문두에 둬으로써 긴 문장에서 문장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잘못된 조사의 사용

- 부정 명사에 유정성 조사를 사용한 경우

교정 전

축산농가에게는

교정 후

축산 농가에는

보충 설명

'축산 농가'는 부정 명사(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명사)이므로 유정 명사에 붙는 조사인 '에게'가 아닌 부정 명사에 붙는 조사인 '에'가 사용되어야 한다.

- 주어·서술어의 관계를 드러내는 데 부적절한 조사가 사용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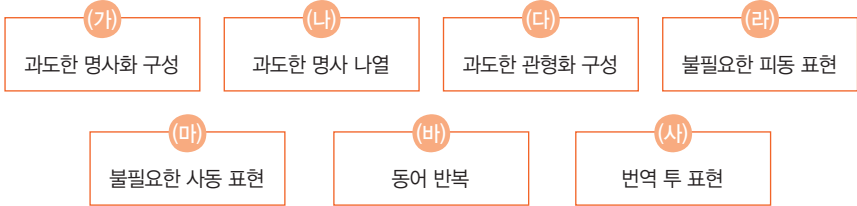
| | |
|---|---|
| <p>교정 전</p> <p>3개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된다.</p> | <p>교정 후</p> <p>3개 프로그램이 각각 운영된다.</p> |
| <p>보충 설명</p> <p>‘3개 프로그램’이 주어이므로 목적격 조사 ‘을’이 아닌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어야 한다.</p> | |

(마) 과도한 접속

| | |
|--|--|
| <p>교정 전</p> <p>특히 지역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기술경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영혁신이 잘 정착된 모범기업의 견학을 통해 경영혁신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연구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p> | <p>교정 후</p> <p>특히 지역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기술경영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영혁신이 잘 정착된 모범기업의 견학을 통해 경영혁신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연구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p> |
| <p>보충 설명</p> <p>지나치게 긴 문장 길이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접속은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된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 문장의 주된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기술경영의 발전 도모’와 이를 위한 ‘경영 혁신의 성공 사례 견학’이므로 두 문장으로 나누었다.</p> | |

6.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지나친 관형화나 명사화 구성을 사용한 문장, 번역 투 표현을 사용한 문장, 과도한 피동·사동 표현을 사용한 문장은 우리말답지 않고 어색하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가) 과도한 명사화 구성

| | |
|--|---|
| <p>교정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대응을 위해 • 우선 실시 • 적극 이용 • 집중 관리 • 통일 무관심 | <p>교정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 우선적으로 실시 • 적극적으로 이용 • 집중적으로 관리 • 통일에 관한 무관심 |
| <p>보충 설명</p> <p>명사화 구성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의미 파악이 어려워진다. 풀어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한 표현이 된다.</p> | |

(나) 과도한 명사 나열

교정 전

-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119 구조·구급 통계자료
- 「신병군인만들기」 계획에 의거 폐기되었던
- 확정 발표했다.
- 예보, 경보로 구분 실시된다.

교정 후

- 농기계 안전사고와 관련된 119 구조·구급 통계자료
- 「신병 군인 만들기」 계획에 의거하여 폐기되었던
- 확정하여 발표했다.
- 예보, 경보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보충 설명

조사를 과도하게 생략하거나 서술어의 일부를 생략하고 명사만 나열하면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다) 과도한 관형화 구성

교정 전

인터넷상에서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교정 후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터넷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보충 설명

명사 앞에 꾸미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비문법적이고 의미 파악이 어려운 문장이 되기 쉽다.

(라) 불필요한 피동 표현

교정 전

- 지속 되었을 때 발령하고 ~ 이하 일 때 해제된다.
- 지원하게 된다.
- 대표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제3자에게 보관되어 있던 외평채

교정 후

- 해제한다.
- 지원한다.
- 대표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외평채

보충 설명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명료하게 의미 전달을 할 수 없다.

(마) 불필요한 사동 표현

교정 전

자치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교정 후

자치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충 설명

‘강화하다’가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강화시키기 위해’를 ‘강화하기 위해’로 고쳐야 한다.

(바) 동어 반복

교정 전

- 매년마다 • 각 지역별

교정 후

- 매년, 해마다 • 지역별로

보충 설명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동어를 반복하여 의미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인 표현을 위해 동어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 번역 투 표현

☑ 교정 전

- 선정된 점포에 대해서는

☑ 교정 후

- 선정된 점포에는

☑ 보충 설명

'~에 대해서'와 같은 번역 투 표현은 피한다.

03

소통성

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저속한 표현’이나 ‘구어적인 표현’은 공공언어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속한 표현이란 비속어나 어감이 좋지 않은 말로 상스러운 말, 욕설, 과도한 줄임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도 자료는 문어이므로 구어 표현을 쓰지 않는데, 예를 들어 문장 종결에 ‘-구요’를 쓰거나 ‘-기에’ 대신 ‘-길래’를 쓰는 경우, ‘매우’의 뜻으로 ‘되게’를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보도 자료의 목적상 대체로 문어에 맞는 표현을 써야 공공언어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다.

- <보도 자료에 어울리지 않는 구어적인 표현>

교정 전

- 우리를 도와줬고
- 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아리송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정 후

-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고
- 그러나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
-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충 설명

‘도와주다, 하지만, 아리송해하다’처럼 구어적이거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듯한 어휘는 피하는 것이 좋다.

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공공언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반듯하고 무게가 있어야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보도 자료의 경우 가급적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표현을 삼가야 한다.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표현이란 '7일 내로 즉시 제출 바람'과 같이 공공기관 중심의 표현을 말하는데, 언중이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이라고 느끼기 쉬운 표현은 주로 공권력이 집행되는 법률문이나 공고문 등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경찰의 공무 집행, 행정 명령, 법적 판결 등의 표현이 고압적인 경우가 많다. 보도 자료에서는 표현을 부드럽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 <주의해야 할 고압적·권위적 표현>

교정 전

- 운영토록 지시하였다.
- 발령상황을 동시에 전파하여 시민에게 홍보한다.
- 상품을 전진 배치하여야 하고
- 표준화 우수사례 발굴·전파
- 고용노동부장관은 ~며 노고를 치하였다.
- 부하직원이 대리서명
- 일제 조사·단속 실시


교정 후

- 운영하도록 하였다.
- 발령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 상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하고
- 표준화 우수 사례 발굴·소개
- 고용노동부 장관은 ~라고 말했다.
- 대리권자가 대리 서명
- 점검 실시

보충 설명

'지시하다, 전파하다, 전진 배치하다, 마련해 주다, 격려하다, 인식시키다, 노고를 치하하다, 부하직원, 일제 조사·단속'처럼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표현은 보도 자료에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림 12]에서는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습니다’ 체를 사용하여 수신인인 일반 국민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이 항목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 | |
|--|---|---------------------|
|  국립국어원 | 보도 자료 | |
| | 2011년 12월 9일 배포 | 2011년 12월 12일 조간 보도 |
| | 총 1쪽, 불임 : 2쪽 | 담당: 학예연구사 ○○○ |
| | 전화 : 02) 1234-5678 / 전송 : 8765-4321 / 전자우편 : gildong@korea.kr | |

병무청(청장 金永厚)은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맞아 어린이들에게 병역의 소중함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전국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5월 2일(월)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병역은 나라사랑의 첫걸음'이란 주제로 전국 3~6학년 초등학생들의 참여 속에 그림 2,959작품, 글짓기 1,422작품으로 총 4,381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들 작품에 대하여는 전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표현력, 창의성, 조화, 완성도, 주제적합성, 구성, 논리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결과 이번 대회 대상인 국방부장관상은 그림부문에 대전 정림초등학교 5학년 민수빈 학생이, 글짓기 부문은 대구 계성초등학교 3학년 강대연 학생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금·은·동상 28명에게는 병무청장상을, 특별상 2명에게는 대회를 공동 주관한 소년한국일보사장상이 소정의 부상과 함께 수여될 예정입니다.

특히 '행복으로 키워가는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그림부문에 참여한 민수빈 학생은 작품설명을 통해 정성과 노력으로 지켜주는 군인아저씨들이 있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함을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임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아 그림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애국가를 매일 듣는 우리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강대연 학생은 엄마의 핸드폰 벨소리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매일 들으며 우리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곧 군에 갈 형과 군인아저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음을 글로 표현했으며, 애국가를 통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아 글짓기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인 한국문인협회 이규식 교수는 "병역의무에 대한 어린이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으며, 각 작품마다 어린이들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병역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국방홍보원 소속 연예병사 정병균 상병과 양세찬 일병이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며 수상자들을 응원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5.2일부터 5.16일까지 대전정부청사 중앙홀에서 전시회를 갖게 되며,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와 병무청 기관 블로그 청춘예찬(<http://blog.daum.net/mma9090>)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콘텐츠로 제작하여 학교, 군부대 등 순회 전시 및 사이버 전시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과 감동을 나누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그림 12] 권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보도 자료

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보도 자료에서는 ‘학부형’이나 ‘여류 작가’ 등과 같이 성적으로 편향된 표현을 삼가고, 가정의 문제(이혼, 편부모,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차별적 언급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역, 인종, 장애에 대한 차별적 표현도 지양해야 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보도 자료의 주제에 따라 차별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주의해야 할 차별적 표현>

교정 전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 중구의 독거노인과 결손가정에 전달됐다.


교정 후

-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소외 계층’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서울 중구의 독거노인과 한 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가족 등에 전달됐다.
… ‘결손 가정’은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안전하다는 뜻의 가치 편향적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충 설명

‘소외 계층, 결손 가정’ 등처럼 가치 편향적 표현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 보도 자료는 통일 및 대북 인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치 편향적이거나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 | |
|--|---|
|  국립국어원 | <h2 style="margin: 0;">보도 자료</h2> |
| | 2011년 4월 26일 배포 2011년 4월 26일 |
| | 총 1쪽 담당: 문화여가정책과 *** 사무관 |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통일 및 대북인식에 있어서는**
 - 통일에 대한 열망이 70.8%,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75.4%를 차지하였음.
 - * 통일 열망 : 72.9%(‘10.3월)→71.1%(‘10.6월)→66.7%(‘10.9월)→61.7%(‘10.12월)
 - * 통일 관심 : 75.6%(‘10.3월)→75.3%(‘10.6월)→72.9%(‘10.9월)→72.9%(‘10.12월)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민족이니까 39.1%, 안보불안 해소 26.7%, 선진국이 되기 위해 14.9%, 북한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11.7%, 이산가족 재회 3.4%순으로 응답하였음.
 - * 고령층·저학력층일수록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저연령층·고학력층일수록 안보불안 해소 이유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도와줘야할 계층으로 40.7%가 인식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은 57.7%가 협력대상 이라는 의견이었음.

-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수행 평가에 있어서는**
 - 우리 국민 47.5%는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43.0%가 대북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 대북정책 지지도 : 47.8%(10.3월)→42.3%(10.6월)→44.2%(10.9월)→50.0%(10.12월)
 - * 대북정책 수행평가 : 44%(‘10.3월)→39.9%(10.6월)→41.0%(10.9월)→38.9%(10.12월)

- **북핵문제 우선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0.7%**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였음.

-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74.5%로 다수이며, 우리나라 군사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의견이 71.8%를 차지하고 있음.**
 - * 도발 가능성 : 52.3%(‘10.3월) → 52.0%(‘10.6월) → 59.5%(‘10.9월) → 71.3%(‘10.12월)
 - * 군사안보 상황 : 47.8%(‘10.3월) → 63.5%(‘10.6월) → 64.4%(‘10.9월) → 86.0%(‘10.12월)

통일부 대변인


[그림 13]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보도 자료

4.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보도 자료 생산자는 자신이 보도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이 무엇인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보도 참고 자료’, ‘해명 자료’의 형식을 구별하여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가?
- ② ‘머리말+본문+첨부 자료(생략 가능)’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 ③ 머리말이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 ‘발신 정보’에는 담당 부서,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를 담고 있는가?
 - ‘자료 정보’에는 ‘자료 분량, 첨부파일 여부, 생산 일자 또는 배포 일자, 보도 일시’를 담고 있는가?
- ④ 본문이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 본문이 제목과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 기사의 핵심 정보를 담은 리드(lead)를 첫 문단에 제시하고 있는가?
 - 본문에 보도 자료의 핵심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하고 있는가?
- ⑤ 첨부 자료를 본문과 연계하여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다음의 [그림14]는 정보의 형식을 효과적으로 갖춘 모범 사례인데, 전체적으로 보도 자료의 적절한 형식과 필요한 첨부 자료를 갖추고 있고, 머리말에서도 발신 정보와 자료 정보가 비교적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다.

| | |
|--|-----------------------------------|
|  국립국어원 | <h2 style="margin: 0;">보도 자료</h2> |
| 2011년 4월 26일 배포 | 2011년 4월 26일 |
| 총 1쪽, 불임 : 1쪽 | 담당: 문화여가정책과 *** 사무관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문화 바우처 사업, 4월 27일부터 시작

- 문화 소외 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문화를 통한 사회 통합 추진
- 예산, 지난해보다 다섯 배 정도 증가

문화 소외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을 관람하거나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 바우처' 사업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문화 바우처' 사업은 올해부터 '문화 카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도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 카드'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문화 시설이 없는 산간·도서·벽지 거주자나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동이 힘들어 문화 예술 프로그램 관람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 지역별로 '기획 사업'이 제공된다. '기획 사업'은 아동, 장애인 등에게 이동 편의 및 보조 인솔자 등을 제공하는 '모셔오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여 집밖 출입이 어려운 재가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재능 기부자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2011년도 '문화 바우처' 사업에는 복권 기금 245억 원과 지방비 102억 원 등 총 3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는 2010년도 예산(67억 원)에 비해 약 다섯 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문화부의 올해 3대 역점 사업의 하나는 문화 안전망 강화다. '문화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 소외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문화 격차를 줄이는 사업이다.

※ '문화 바우처' 이용 문의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 대표전화 ☎ 1544-7500, 1566-7500


※ '문화 카드' 견본 ※ 첨부: 문화 바우처 문화 카드 안내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사무관(☎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4] 정보 형식을 효과적으로 갖춘 보도 자료

반대로 [그림 15]는 보도 자료의 형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인데, 문서가 아닌 게시판 글로 제시되어 보도 자료의 전체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했고, 머리말에 서는 발신 정보만 제시하여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 | |
|---|---|------------------|
|  | 보도 자료 | |
| | 작성일 : 2011-04-26 | 수정일 : 2011-05-02 |
| | 총 1쪽, 붙임 : 1쪽 | 제공부서: 유시타정보담당관실 |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市 행정정보, “내 손안에서 본다”

**부산시, 5월 1일부터 스마트 폰을 통하여 시 행정정보 서비스 본격 제공 -
모바일홈페이지와 16종의 앱서비스 실시**

스마트 폰 가입자 천만명 시대를 맞아 부산시가 스마트 폰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여 선보이는 등 스마트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바일홈페이지를 비롯한 부산문화관광 서비스 구축 등 모바일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시범 운영 및 보완 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번에 선보이는 모바일서비스는 총 132종의 서비스를 내장한 모바일홈페이지와 앱서비스 16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손 끝 하나로 다양한 모바일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6종의 모바일 앱 서비스는 부산시 모바일 홈페이지(<http://~~.~.kr> 하단부 링크) 또는 통신사별 앱스토어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부산시 대표 홈페이지를 스마트 폰 화면에 맞게 재구성한 모바일 홈페이지(<http://~~.~.kr>)에서는 부산시에 바란다, 고시·공고, 예산낭비신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 여권발급 안내, 시 직원 전화번호, 부산시 10대 비전, 취업정보, 복지정보, 사회복지시설 등 132종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서비스를 한다.

[그림 15] 보도 자료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사례


5.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정보가 생략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는지에 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시하거나, 반대로 정보가 부족해서 여러 번 다시 읽어야 한다든지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해야 한다면 정보량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적절한 정보량을 판단하는 기준〉

- ① ‘리드(lead)’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의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가?
- ②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제목에서 드러내고 있는 핵심 정보를 본문에서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는가?
 - 불필요한 잉여 정보를 제시하지는 않는가?
 - 동일한 정보를 필요 이상 반복해서 제시하지는 않는가?
 -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가?
- ③ 인용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인용의 출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혹 인용 정보를 해당 기관이 생산한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인용 내용의 범주를 구체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 ④ 정보 전개에 필요한 표나 그래프, 그림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그림 16]은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제시한 모범 사례인데, 제목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모두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잉여 정보가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시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 보도 자료 | |
| | 작성일 : 2011-04-28 | 수정일 : 2011-05-02 |
| | 총 1쪽, 붙임 : 1쪽 | 제공부서: 유시팅정보담당관실 |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제4회 그린웨이 축제” 기념 전북녹색성장포럼 워크숍 개최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방문 “녹색생활실천의 중요성” 강조


○ 추진배경

- 전라북도에서는 “제4회 그린웨이 축제”를 기념하여 환경부 환경정책실 윤종수 실장을 초청, 전북 녹색성장포럼을 '11. 4.28(목) 전북도청에서 개최하였다
- < 전북녹색성장포럼 >
 - ◆ 구성일자 : 2008. 11. 24
 - ◆ 구성인원 : 3개분과 42명(환경 : 경제·사회 각 분야를 망라한 네트워크 구축)
 - 공동대표 : 전북도청(새만금환경복지국장 ○○○),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센터장 ○○○)
 - ◆ 구성목적 : 녹색성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연구

○ 추진현황

- 이번 포럼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방식과 달리 전북도민의 폭 넓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 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 환경부(○○ 실장)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녹색성장 비전에 대해, 도민이 실천하고 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쉬운 설명으로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녹색생활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민 모두가 녹색정책을 이해하고 녹색생활실천 확산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전북테크노파크(○○ 단장)는 ‘전북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이라는 주제로 동북아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전라북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 특히,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방향 중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조성 및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개발 등 전라북도 역점사업중 하나인 새만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당일 참석한 도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림 17]은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황사 발생 과정과 황사특보 발효 기준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고 정작 필요한 황사 대처에 대한 정보는 첨부 자료로만 제공하고 있어 내용에 초점이 없다.

| | | |
|---|---|-------------------|
|  | 보도 자료 | |
| | 제공일자 : 2011-04-22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 | 주책인자 : 자연재해담당(○○○) | 주 무 관 : ○○○ |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봄철 불청객‘황사’이렇게 대처합시다!


— 기상상황 신속전파, 홍보 등 철저한 대비로 황사 피해 최소화 —


매년 봄철(3~5월)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황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봄철에 집중되는 황사에 대비하여 관련부서, 구·군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행동요령을 홍보하는 등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 매년 봄철이면 반갑지 않는 손님 황사가 찾아온다. 황사는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미쳐, 시민들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지역 황사는 최근 30년간(1981~2010년) 연평균 관측일수는 6.1일이며, 이중 5.1일(83%)이 봄철(3~5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봄 기상청의 기상전망에 따르면 우리지역 황사발생일수는 4월은 평년(2.2일)과 비슷하겠으며, 5월에는 평년(0.8일)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북부지역의 기쁨으로 강한 황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 대구시는 황사 발생시는 도로변과 대규모 공사장 물 뿌리기, 진공청소차를 활용한 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 또 황사대비 동영상 및 시민행동요령 등을 시,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종 언론매체와 시가지 대형 전광판, 지하철 LCD 방송 등을 통하여 동영상 및 문자로 송출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및 아파트단지 내 방송, 마을애플 등에도 황사특보 발효와 시민행동요령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그림 17]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보도 자료(1)

그리고 [그림 18]의 경우는 첫 문단의 리드에 본문의 핵심 정보가 기술되지 않았고, 피인용자(충청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인용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구마 소개에 치중하여 고구마 성분에 대한 내용은 불필요하게 과잉 제공되었고, ‘보라미’와 ‘하얀미’에 대한 사진 정보가 없어 내용 이해를 어렵게 한다.

| | | | | | | | |
|--|--|-------------------|-----------|-------------|-------------|---|--|
|  국립국어원 | <h2 style="margin: 0;">보도 자료</h2> | | | | | | |
|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border: none;">등록 일 : 2011-03-11</td> <td style="width: 50%; border: none;">조 회 : 311</td> </tr> <tr> <td style="border: none;">작 성 자 : 공보관</td> <td style="border: none;">계시번호 : 4568</td> </tr> <tr> <td colspan="2" style="border: none;">전화: 02)****-**** / 팩스: ****-**** / 이메일:</td> </tr> </table> | 등록 일 : 2011-03-11 | 조 회 : 311 | 작 성 자 : 공보관 | 계시번호 : 4568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 등록 일 : 2011-03-11 | 조 회 : 311 | | | | | | |
| 작 성 자 : 공보관 | 계시번호 : 4568 | | | | | |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 | | | | |



농기원 오색미 고구마 생산 시범단지 조성

웰빙다이애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오색미(五色味) 고구마생산시범단지가 도내 50ha가 조성된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민경범)이 추진하는 오색미 생산 시범단지는 충주, 청원, 보은, 괴산, 단양 5개 시군에 1개소(10ha)씩, 5,000만원씩 2억5,000만원을 지원 50ha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여러 가지 색과 맛이 나며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신품종으로 고구마 속이 주황색을 띠는 주황미, 보라색을 띠는 보라미와 신자미, 백색을 띠는 하얀미 등의 품종으로 농촌진흥청 바이오센터에서 생산된 우량종자 13품종을 분양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구마는 배를 채우는 구황용 식량과 입맛을 돋우는 간식용 정도로 이용되어오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쌀 소득에 비해 2~3배의 고소득을 창출하는 효자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재배면적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으로 재배할 최근에 육성한 자색(보라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100g당 200~300mg 정도로 높아 항산화 기능에 의한 노화방지 및 항암 등의 효과와 숙취해소로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용색소, 음료, 외인형태의 술 제조 등 가공용으로 이용이 적합하다.

주황색 계통의 고구마는 찐 고구마 보다는 생식용으로 훨씬 맛이 좋으며 베타틴 A의 전구물질로 알려져 있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고 당근보다는 인체흡수력이 뛰어나 건강기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인체 여러 조직에 고루 분포하면서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암작용은 물론 지방단백질(지단백)속에 함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함량을 감소시켜 고지혈, 동맥경화, 협심증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간식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구마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농가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도 함께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 18]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보도 자료(2)

6.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이 항목은 정보가 적절한 순서로 제시되었는지, 또 제시된 정보들 간의 관계가 논리적인지를 고려하는 항목이다. 여기에서는 텍스트의 통일성, 긴밀성, 논리성, 주제에 대한 일관성을 고려하며 보도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보 구성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① 제목의 구성이 적절한가?

- 제목은 보도 자료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가?
- 제목에서 표제와 부제의 관계는 적절한가?

② 문단의 구분이 적절한가?

-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하나의 문단에 담고 있지는 않는가?)
- ‘ㅁ, ㅇ, -’ 등의 기호로 문단을 구분할 때 기호의 사용에 위계가 있는가?
(단순히 문단을 나누는 용도로 기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관련 있는 정보끼리 적절하게 묶어서 제시하고 있는가?

③ 문장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가?

-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핵심 정보를 완결성 있게 담고 있는가?
문장을 완결 짓지 않고 연결 어미로 끝내고 있지는 않는가?
- 문장의 서술 주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시제가 일치하고 있는가?

④ 문단·문장을 일관성 있고 응집성 있게 연결하고 있는가?


- 접속 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각 문장을 응집성 있게 연결하고 있는가?
- 문단을 의미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응집성 있게 연결하고 있는가?
- 각 문단과 전체 글에서 정보 제공의 주체를 혼동 없이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전체 정보 제공의 주체인 해당 기관을 피인용자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는 않는가?)
- 문장 종결의 서술 방식을 일관성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명사형으로 종결하는 방식과 평서형 종결어미 ‘-다’로 종결하는 방식을 혼용하거나 ‘습니다’와 ‘다’의 종결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문장의 시제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과거 시제를 썼다가 미래 시제를 쓰는 등 시제의 불일치가 나타나지는 않는가?)

⑤ 문단별로 제시된 정보의 순서가 적절한가?

- 리드에 제시한 정보의 순서대로 각 문단에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가?
- 문단 안에서 적절한 순서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가?
- 보도 자료의 마무리 단계에서 '한편' 뒤에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림 19]는 정보를 적절하게 구성한 모범 사례인데, 문단 구분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단 구분이 적절하다. 즉, 문단 간 위계 관계가 분명하고 문장 구성도 적절하여 전체 내용이 응집력 있게 이어지고 있다.

| | |
|--|-----------------------------------|
|  국립국어원 | <h2 style="margin: 0;">보도 자료</h2> |
| 제공일자 : 2011 | 담당부서 : 000 |
| 주책일자 : | 담당 자 : 000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충남도, 지방정부 ‘첫’ 동반성장협의회 출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기업문화 구축키로 –

충남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적인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24일 000 충남지사, 충남도의 대표적 대기업인 00전자 등 5개사와 중소기업·단체 대표 6인, 기업지원 기관·단체 대표 및 경제학 전문교수 7인 등 총 1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계획’ 보고 △향후 협의회 활동의 기본원칙이 될 동반성장협의회 운영규정안 심의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의지를 담은 동반성장 이행헌장을 채택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주된 내용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협의체 구성·지원 ▲기업간 상호협력 문화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동반성장의 조력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동반성장 애로지원 및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동반성장 추진을 가시화하기 위해 5월에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별 5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7월에는 산업별로 협력과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체결은 금년도에 50개 업체, 향후 2014년까지 총 150개 업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충남도는 동반성장 추진이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동반성장협의회가 구심체가 되어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생태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00 충남지사는 이날 “앞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생태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기반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히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강제적 협력보다는 기업간의 자율적인 실천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동반성장협의회가 대·중소기업간의 대화와 소통채널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주길 기대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림 19] 정보를 적절하게 구성한 보도 자료

반대로 [그림 20]은 정보의 구성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텍스트의 응집성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문단 구분 기호의 사용에 일관성이 없고 문단 관계에 위계가 없으며, 하나의 문장을 분절하여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함으로써 문장 구성의 응집성이 떨어진다. 또한 한 문단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문단 내용에 초점이 없고, ‘투자 유치 설명회’와 ‘김천 혁신 도시 홍보’에 대한 내용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 보도 자료 전체의 핵심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를 어렵게 한다.

| | |
|--|--|
|  국립국어원 | 보도 자료 |
| | 제공일자 : 2011 담당부서 : 건설도시지방재국 균형개발과 |
| | 작성자 : 과장 000, 담당 000, 담당자 000 |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경북김천혁신도시 투자유치 열기 후끈

- 경북혁신도시 토지분양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 경상북도, 김천시, LH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는 4월26일(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의 건설업체, 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체, 투자관심이 있는 시민 등 200여개의 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북김천혁신 도시(경북드림밸리)의 토지분양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 금번 설명회는 경북김천혁신도시의 추진상황, 이전기관 소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 등을 소개하고, 혁신도시내의 공동주택용지 및 일반용지에 대한 분양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 특히, 설명회에는 남광토건, 호반토건,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거 참여한다.
- 경북김천혁신도시는 총3,815,131㎡부지에 클러스터용지 1,108,595㎡, 상업업무용지 163,221㎡, 주택건설용지 783,188㎡, 공원녹지963,322㎡, 도시지원시설용지 796,805㎡로 구성되고 현재 4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 중이며 7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 이밖에 토지분양은 주로 클러스터 용지, 상업업무용지, 주택 건설용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경북김천혁신도시의 입지, 정주여건을 살펴보면
 - 혁신도시의 교통여건 및 접근성은 KTX김천(구미)역이 혁신도시와 접해있고, 경북고속도로 동김천C,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913호선 확장, 교차로 확장, 입체화 등으로 혁신도시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 또한, 경북김천혁신도시는 공원녹지비율이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도서관, 유치원2, 초등학교3, 중학교2, 고등학교 2개교를 향후 연차적으로 건립하게 되면 우수한 교육여건도 갖추게 된다.

- 경북김천혁신도시는 U-City, 범죄예방, 종합복지관, 자전거도로, 웰빙 숲 등도 계획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추게 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가 많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목과학검역원, 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3개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함께 거주하게 되어 김천의 인적혁신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 경북김천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은

-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의 청사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우정사업조사사무소는 3월에 기 착공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6월경, 교통안전공단 등 2개 기관은 하반기에 착공하게 된다.

- 특히, 경북김천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의 청사건축에는 「지역공동의무도급제」 시행으로 40%의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금번 투자유치설명회의 계기로 평소 혁신도시에 관심이 많았던 기업이나 개인에게 정확한 분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혁신도시 건설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리라 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내 주택 및 토지분양을 활성화하고, 명품 경북김천 혁신도시 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림 20] 정보 구성이 적절하지 못한 보도 자료


7.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한 문장에 담을 수 있는 정보량과 문장의 길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 문장이 너무 길면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복잡하게 느껴지고 시각적인 부담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문장이 담고 있는 생각의 연결성이 강하여 각각의 문장으로 나누기 어려운 데다가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문장이 길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문장의 길이가 무조건 짧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의 길이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

- ①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핵심 내용을 포함시켜 문장이 지나치게 길지는 않은가?
- ② 연결 어미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문장이 너무 길지는 않은가?
- ③ 문장이 너무 짧거나 함축적이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명확하지는 않은가?

다음의 [그림 21]은 모든 문장이 한 문장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하나씩 대응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문장의 길이 또한 적절하여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 | | |
|--|---|--------------------|
|  국립국어원 | 보도 자료 | |
| | 보도협조일 : 배포시부터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 | 자료배포일 : 2011.2.22 | 생산부서 : 통일정책실 정책홍보과 |
| | 전화: 02)****_**** / 팩스: ****_**** / 이메일: | |

이명박 정부 3년, 바른 남북관계 정립

– 경북혁신도시 토지분양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 했습니다.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비핵· 개방· 3000」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평화구상」, 「Grand Bargain」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분야별 대북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 개성공단 발전 3원칙, 인도적 문제 해결 원칙 등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북한에 분명하게 제시
 - 한편, 북한의 잘못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 *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5.24 조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874호) 이행
- 통일준비를 국가적 의제(Agenda)로 설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2010년 대통령 「8.15 경축사」를 계기로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현실적·적극적 통일준비에 착수했습니다.
 - 3대공동체(평화·경제·민족공동체) 형성 및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을 구성('10.8월)하고,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시작('10.11월)하였습니다.

[그림 21]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 보도 자료

이와 대조적으로, 한 문장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거나 개조식 문장을 길게 나열한 경우, 심포나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내용을 길게 나열하거나 문단 기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계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 한 문장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은 경우

- 제대군인이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에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후 법률구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사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지원 실시(국가보훈처)

- 이밖에도 2010년 11월 창원시 이동민원신고센터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한 반면 이와 연결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장물 일부분을 피하여 시공하면 도로간 연계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대구경북 일일 이동민원신고센터 개소(대구광역시청)

- 대전시를 비롯한 3개 시도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20일 정부에 제출하면서 법령에 나와 있는 모든 입지평가 요건이 경쟁도시에 비해 우수한 점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었다며 정부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충청권으로 거점지구가 입지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준비된 과학벨트 최적지 세종시, 당위성 논리 정부 제출(대전광역시청)

한 문장이 4줄에서 6줄 이상 길어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한 문장에 핵심 내용이 하나로 구성될 수 있도록 문장을 분절할 필요가 있다.

(나) 개조식 문장을 길게 나열한 경우

- 응급구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은 교통사고로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위해 사고현장에 구조헬기를 출동시켜 대형병원으로 신속히 **이송**, 치료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사고 응급환자 이송을 119구급차에 의존하던 기존의 틀을 깨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갖추어 헬기를 이용한 응급구조 시스템을 구축,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고자 경찰, 소방, 도로공사 간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도로공사 간 고속도로 응급구조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경찰청)

-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등 13개국은 아시아 국가간 상호 비교 가능한 경제통계 생산을 위해 공동 제조업분류체계(EAMIC**)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제조업통계 비교표를 **작성**, 그 결과를 오는 3월 7일(월) 개최되는 ‘제5차 동아시아제조업통계전문가회의’에서 발표한다.

-ASEAN+한·중·일 공동 제조업분류체계 구축(통계청)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중순경, 강남 일대 고급 오피스텔 등지에서 불법 카지노가 성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탐문 수사를 통해 도박장의 소재와 건물 배치, 범인들이 사용하는 차량과 전화번호 등을 파악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4. 26 야간 잠복 끝에 도박꾼들이 바카라 게임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급습, 현장에서 바카라 게임에 빠져있던 손님 등 34명을 검거하였다.

-고급 오피스텔 불법 카지노 운영업자 등 피의자 34명 검거(경찰청)

위 사례들에서는 서술어에서 ‘-하다’를 생략하여 개조식 문장을 길게 나열함으로써 한 문장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이상을 담고 있어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 심표나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내용을 길게 나열하는 경우

- 또한 이 지역의 기반시설로는 고부가 가치의 국제물류기지와 동북아시아의 환 황해 거점항만인 평택-당진항이 위치하고 **있고**, 산업시설은 LNG기지, 화력발전소 등 주요 임해시설이 집중된 해역**이며**, 아울러 전곡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해역으로써 개서 후 평택해양경 찰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될 것**이며**, 또한 수도권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 되는 해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중부 해역 전담 해상치안기관 4월초 개서(해양경찰청)

- ○○케미칼(주)은 지난해 말 수원공장 종업원 150여명을 울산공장으로 전 환 배치했으며, 확보된 부지에 수원공장을 이전하여 울산을 거점으로 한 통 합운영시스템 구축과 친환경 소재사업으로서 경량화 복합소재, 바이오 소 재 등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소재사업도 **검토**, 추진 할 예정이다.

-SK케미칼 친환경 신성장 동력산업 대규모 투자(울산광역시청)

위 사례들에서는 심표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길게 나열함으로써 한 문장 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이상을 담고 있어 이해를 어렵게 한다. 심표나 연결 어미로 이 어진 각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하여 한 문장에 담기는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 문단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계속 나열하는 경우

-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참여대학생은, 5월 말 지식경제부 주관의 전국규모의 발대식 참여를 시작으로, 8월까지 참여대학생들이 선정된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는데,
- 여기에서 얻어진 정보는 신문·방송보도와 동영상,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대학생과 청년구직자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통될 예정으로, 지역의 우수기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물찾기 시작(인천광역시청)

- 한편, 면회시행에 대한 각급부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면회를 실시하게 되면 입영장병과 부모의 심리적 안정으로 2차훈련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 지역주민, 지자체, 국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충족이 가능하고,
 - 대국민 안보교육 및 군에 대한 홍보의 기회로 대군 신뢰도가 증진되며,
 - 면회시설 및 공간 부족, 면회오지 않는 병사들의 소외감 등 일부 제한사항은 시설개선 및 사용시차 조정, 전우가족 합석주선 등으로 해소가 가능함.

—신병 면회제도 개선(국방부)

위 사례들에서는 문단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행을 바꾸고 있으나, 실제로 행을 달리한 절들이 모두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 내용 이해를 방해한다. 문단 구분 기호로 나뉜 절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8.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쉽고 친숙한 용어’는 가독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는가와 연관되는데, 어렵고 현학적인 표현을 남용하여 읽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쉽고 친숙한 용어 사용을 위한 기준>

- ①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 전문용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②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③ 정해진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가?
- ④ 일관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가?
- ⑤ 전문 용어에 대해 적절한 해설을 하고 있는가?
- ⑥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병기를 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 ⑦ 한자어 줄임말의 경우, 본말을 병기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다음의 [그림 22]는 생소한 전문어나 낯선 한자어를 지양하고 언중에게 쉽고 친숙한 인상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 | | |
|---|---|-----------|
|  | 보도 자료 | |
| | 등록일 : 2011. 03. 21 | 조회수 : 715 |
|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법무부, 재한외국인 생활체험 수기 및 이민정책 우수논문 공모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5월 20일 '제4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3월 21일부터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와 '이민정책 우수논문'을 공모합니다.

- 법무부는 제4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공동으로 3월 21일부터 '2011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은 재한외국인들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연과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생활체험수기의 주제는 · 결혼이민자의 이주 동기나 삶의 애환 등 생활체험담, · 취업, 유학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은 사연, ·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에피소드, 한국생활의 어려움 극복사례, ·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자원봉사활동 중 겪은 사연 등입니다.
- 결혼이민자 가족구성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재한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외국인관련 지원센터 종사자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또한, 국내 체류외국인 126만 명 돌파 등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민정책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연구·개발 진흥을 위하여 4월 30일까지 '2011 이민정책분야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논문주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이민정책 분야에 대한 것으로 · 다문화사회 진전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올바른 방향, · 한국사회 실정에 맞는 이민자 유형별 사회통합정책 고찰, · 국제결혼피해 방지를 위한 현행 국제결혼 절차 개선 방안, · 개정 국적법(복수국적 중심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4가지입니다.
- 응모자격은 이민정책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외국인 관련단체 종사자, 일반시민, 외국인 등이며, 일반연구자들의 이민정책분야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취지이므로 박사학위 소지자나 연구원 등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림 22]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한 보도 자료

이와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나 외래어를 남용한 경우, 어조가 통일되지 않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나 외래어의 남용

- 토론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영재 박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임영재 박사는 미국방성(DoD)의 2010년 획득공무원 교육자료를 통대로 우리의 방위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의 도입을 통한 기술과 품질의 혁신 유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방R&D 체계를 정비하여 국가R&D 체계와 연계를 강화하고, 업체주관 개발사업 확대
 - 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저해하는 실비원가정산제도를 축소하고, 창의적 인센티브가 발현되도록 계약형태 디자인
 - 군 소요에만 의존하는 내수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시장을 고려한 방위산업 육성
 - 양산前 운용시험제도, 턴키공사와 같은 민간의 책임감리제도 도입 등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방위사업의 시장화, 고품질화 저해 요인 극복방안(방위사업청)

‘R&D’는 ‘연구 개발’로 ‘인센티브’는 ‘성과급’으로, ‘턴키공사’는 ‘일괄 공사’로 순화가 가능하므로, 순화어를 쓰는 것이 좋다.

(나) 어조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

- 지난해에는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국민적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10.27~11.30일까지 건물 등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예비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 이번 고지는 3.26~6.30까지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100만명에게 통·리장이나 집배원, 행정공무원이 가정,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게 되며,
- 고지문에는 새로 부여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과 부여사유, 현재의 지번주소, 바뀐 도로명주소 및 도로명칭 유래,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 등이 기재되고, 방문고지, 서면고지, 공시송달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 사용을 위한 고지·고시 실시(강원도청)

해체와 하십시오체가 함께 쓰여 어조가 일관되지 못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어조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 동일한 종결 어미를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다) 한자를 그대로 노출한 경우

- 해양경찰청(청장 치안총감 모강인)은 서해중부 해역의 해상 치안을 전담할 해양경찰서 신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인 평택해양경찰서가 4월초 開署될 예정이다. 해양 경찰청은 그동안 이 해역을 전담하는 해상치안기관이 없어, 해양종사자들의 불편초래 및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임을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구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등 부처간 협의를 마치고 마침내 신설되게 되어 현재 평택해경서 준비단을 구성하여 不撤晝夜로 노력하고 있다.

-서해중부 해역 전담 해상치안기관 4월초 개서(해양경찰청)

‘開署, 不撤晝夜’는 한글과 병기하여 ‘개서(開署), 불철주야(不撤晝夜)’로 표기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신설(新設)’과 ‘밤낮으로’처럼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9.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시각적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읽는 사람들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글자를 잘못 읽을 확률을 줄이며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준다는 의미이다. 시각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글자 크기, 글자 모양, 색깔, 여백, 표 편집, 잘 처리된 표나 도식, 이해를 돕는 삽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각적 편의의 판단 기준>

- ① 표제와 부제가 두드러지는가?
- ② 글자의 크기나 모양이 적절한가?
- ③ 시각적 편의를 위해 여백을 넉넉하게 두고 있는가?
- ④ 시각적 편의를 위해 밑줄, 음영, 굵은 글씨체 등을 사용하고 있는가?
- ⑤ 시각적 이미지(기호나 도표, 그림)의 사용이 적절한가?
- ⑥ 단락 구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음 [그림 23]은 표제가 두드러지며 도표를 사용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보도 자료

| | |
|---|-----------|
| 보도일 : 2011. 03. 18 | 조회수 : 715 |
| 담당부서 : 국세청 | 담당자 : ○○○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제도 안정적 정착

-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가 처음 실시된 1년간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09년 예정신고 비율 54.1% 대비 35%p 가량 증가하여 납세자들의 예정신고의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올해부터는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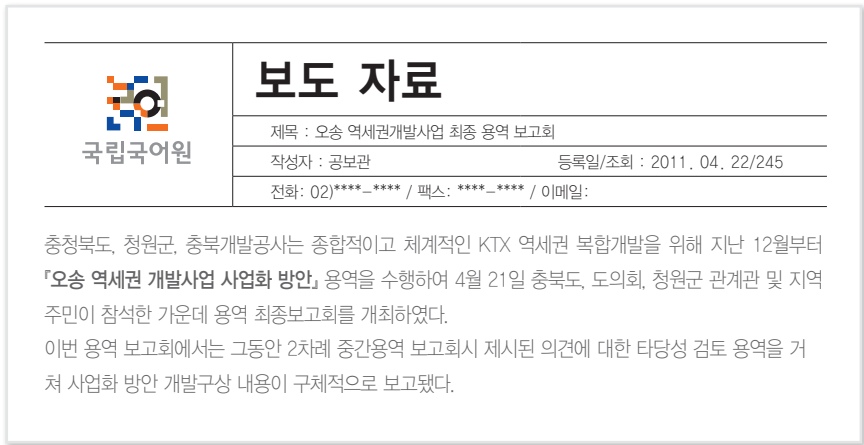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변경내용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지난해 양도분 | | 올해양도분 | | | | | | |
|--|-----------------|----------|------------------------|----------|-----|--|------|-----|--|
| | 예정신고 세액공제율(한도액) | 무신고 가산세율 | | | | | | | |
|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 5%(291천원) | 10% | ·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 | | | | | |
|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r> <td style="width: 100px;">· 협의매수· 수용 부동산</td> <td style="width: 50px; text-align: center;">2년이상</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5%(한도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able> | · 협의매수· 수용 부동산 | 2년이상 | | 5%(한도없음) | 10% | | 2년미만 | 20% | |
| · 협의매수· 수용 부동산 | 2년이상 | 5%(한도없음) | 10% | | | | | | |
| | 2년미만 | | 20% | | | | | | |
| · 주식· 미등기 양도 ·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 없음(-) | 20% | ·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 | | | | | |

[그림 23] 시각적 편의를 잘 고려한 보도 자료

이와는 대조적으로, 표제 및 부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표제 및 부제를 부각시키지 않은 경우, 도표 등의 내용 구조화가 필요한 경우, 문단 기호가 문단 간의 위계를 나타내지 못한 경우 등이 이 항목의 부적절한 사례들인데 그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표제 및 부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림 24] 표제 및 부제를 제시하지 않은 보도 자료

위의 사례에서는 표제 및 부제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아 독자가 게시판 제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본문에서도 표제 및 부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 도표 등으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  | 보도 자료 | |
| | 보도일 : | 조회수 : |
| | 담당부서 : 000 | 담당자 : 000 |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 제 1코스는 '겨울연가'촬영지인 명동에서부터 조각가 권진규와 화가 박수근이 살던 골목을 둘러보는 코스로 춘천의 오래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길이다.
- 제 2코스는 소양강 처녀상에서부터 번개시장을 둘러보는 코스로 기생 전계심과 소양강 처녀의 이야기가 숨어있는 길이다.
- 제 3코스는 춘천미술관과 춘천향교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춘천의 문화와 예술을 느낄수 있는 곳이다.
- 제 4코스는 많은 사람들이 춘천하면 떠올리는 공지천 주변의 조각공원, 어린이회관 등을 둘러보는 코스이다.
- 제 5코스는 강원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등 나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코스이다. 이곳은 차건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제 6코스는 국립춘천박물관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로 최근에 건립된 건물들이 많아 춘천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 제 7코스는 구봉산 전망대가 있는 코스로 춘천을 가장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코스이다.

[그림 26]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의 사례에서는 강원도 길 안내가 보도 자료의 주요 내용인데, 이 지역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제1코스~제7코스가 어떠한 경로로 이어지는 길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코스가 표시된 그림이나 도표의 활용이 필요하다.

(라) 문단 구분 기호가 문단 간의 위계를 나타내지 못한 경우

| | | |
|---|---|-----------|
|  | 보도 자료 | |
| | 보도일 : | 조희수 : |
| | 담당부서 : 000 | 담당자 : 000 |
| | 전화: 02)****-**** / 팩스: ****-**** / 이메일: | |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 박재완 장관은 4.26(화)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실·국장,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일자리 현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발굴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느낀 것은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내가 당사자라면...’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이다라고 말했다.

○ 박재완 장관이 이와 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는 지난 4월 11일부터 일자리 현장을 방문해 발굴한 기업 애로사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다수 있었던데 따른 것이다.

[그림 27] 문단 구분 기호가 문단 간의 위계를 나타내지 못한 경우

위의 사례에서는 해당 부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작은 문단 기호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재진술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어 문단 간의 위계가 문단 기호를 통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 이해를 어렵게 한다.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보도 자료 쓰기

03

/ 피해야 할 외국어 · 한자어

피해야 할 외국어 · 한자어

01 외국어

최근 들어 공문서에서 외국어의 사용이 지나치게 많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상당하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는 정책명이나 행사명은 물론이고, 우리말로도 분명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용어조차 외국어를 사용하여 공문서 읽기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는 가능하면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외국어는 정부와 국민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해 함께 제시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전 | 수정 후 |
|--------------|--------|--------------------|------------|
| 가드레일 | 보호난간 | 언론 플레이 | 여론몰이 |
| 가솔린 | 휘발유 | 업로드 | 올리기 |
| 가이드라인 | 지침서 | 에듀테인먼트 | 놀이학습 |
| 갈라 쇼, 갈라 쇼 | 뒤풀이 공연 | 에레베타 | 승강기 |
| 관광투어 | 관광 여행 | 에스컬레이터 | 자동계단 |
| 그린 벨트 | 개발제한구역 | 에코맘 | 환경친화주부 |
| 글로벌 | 국제 | 에피소드 | 일화 |
| 글로벌 스탠더드 | 국제 표준 | 엑스포 | 박람회 |
| 번호벌 | 비언어적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타 | 승강기 |
| 네트워크 | 통신망 | 오너 | 소유주 |
| 네티즌, 내티즌 | 누리꾼 | 오프너 | 병따개 |
| 노이로제 | 신경쇠약 | 오프닝 | 개막 |
| 논픽션 | 실화 | 오픈하다 | 개장하다 열다 |
| 뉴앙스, 뉴앙스 | 어감 | 오피니언 리더층 | 여론 주도층 |
| 니즈 | 요구 | 올 인 | 다걸기 |
| 닉네임 | 별명 | 와이 파이 | 근거리 무선망 |
| 다운로드 | 내려받기 | 워크숍 | 연구 협의회 |
| 다크 서클 | 눈그늘 | 워킹 맘 | 직장인 엄마 |
| 더치 페이 | 각자 내기 | 워터 파크 | 물놀이 공원 |
| 데코레이션, 데커레이션 | 장식 | 웨딩 플래너 | 결혼도우미 |
| 드라마틱하다 | 극적이다 | 웰빙 | 참살이 |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전 | 수정 후 |
|----------------|--------------|----------------------|-----------|
| 라이선스 | 사용권 | 웹 서핑, 웹서핑 | 누리검색 |
| 라이프 사이클 | 생애 주기 | 유비쿼터스 | 두루누리 |
| 라이프 스타일 | 생활 양식 | 유시씨, 유씨씨, UCC | 손수제작물 |
| 랜드마크 | 마루지, 표지물 | 이니셔티브, 이니시어티브 | 주도권 |
| 레시피, 래시피 | 조리법 | 이니셜 | 머리글자 |
| 레이스 | 경주 | 이데올로기 | 이념 |
| 러닝 타임, 런닝 타임 | 상영 시간 | 이메일, e-mail | 전자 우편 |
| 레이스 | 경주 | 이벤트 | 행사 |
| 레저, 레저 | 여가 | 이슈 | 쟁점 |
| 레크리에이션, 레크레이션 | 오락 | 인센티브 | 성과급 |
| 로열 박스, 로얄 박스 | 귀빈석 | 인스턴트 식품 | 즉석식품 |
| 로열티 | 사용료 | 인터체인지, IC | 교차로 |
| 로컬푸드 | 지역 음식 | 인턴사원 | 실습 사원 |
| 루머 | 뜬소문 | 인프라 | 기반 |
| 룰 | 규칙 | 제로 베이스 | 백지상태 |
| 룸 메이트 | 방친구 | 조류인플루엔자 | 조류 독감 |
| 리더 | 지도자 | 체크 리스트 | 점검표 |
| 리더십, 리더쉽 | 지도력 | 추리닝, 추리닝북, 쉼리닝, 쉼리닝북 | 운동복 |
| 리드미컬하다, 리드미칼하다 | 울동적이다 | 치어 리더 | 흥돋움이 |
| 리빙 룸 | 거실 | 카 시트 | 아이 안전의자 |
| 리사이클링 | 재활용 | 카운슬러 | 상담사 |
| 리셉션 | 연회 | 카운슬링 | 상담 |
| 리스크 | 위험 요인, 위험 요소 | 카운트 다운 | 초읽기 |
| 리플 | 댓글 | 카테고리 | 범주 |
| 리플릿 | 광고 쪽지, 광고지 | 카 풀 | 승용차 함께 타기 |
|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 | 종합 계획 | 케어어 우먼, 캐리어 우먼 | 전문직 여성 |
| 매너리즘, 메너리즘 | 타성 | 캐비아, 캐비어 | 철갑상어알 |
| 매칭으로 | 동반으로, 함께 | 캐시 카드, 캐쉬 카드 | 현금 카드 |
| 맨투맨 | 일대일 | 캐스팅 보트 | 결정권 |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전 | 수정 후 |
|----------------------|---------------------|-------------------------------------|--------|
| 머스트 해브, must have | 필수품 | 캐치 프레이즈 | 구호 |
| 멀티 탭 | 모듬꽃이 | 캘린더 | 달력 |
| 메세나 | 문예 후원 | 캠프 파이어 | 모닥불놀이 |
| 메인 | 주요 | 캡처, 캡쳐 | 갈무리 |
| 메타포 | 은유 | 커플 룩 | 짝꿍차림 |
| 메카 | 중심지 | 컨설팅 | 상담 |
| 멘토링 | 후원, 상담, 지도 | 컨소시엄 | 연합체 |
| 멜로디 | 가락 | 컨퍼런스 콘퍼런스 | 회의 |
| 모니터링, 모니터링 검사 | 점검 | 커리어 우먼 | 전문직 여성 |
| 모델 케이스 | 본보기 | 코스사주, 코스지 | 맵시꽃 |
| 모럴, 모랄 | 도덕 | 코스 | 경로 |
| 모티브, 모티프 | 동기 | 코스트 | 비용 |
| 모티켓, 모티켈 | 통신 예절 | 쿼터제 | 할당제 |
| 무빙 워크 | 자동길 |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 신용 카드 |
| 문화바우처 | 문화복지상품권, 문화시설이용권 | 크로스 백 | 엇걸이가방 |
| 미스매치 | 잘못된 배정 | 클러스터 | 연합 |
| 바겐 세일, | 할인 판매 | 타겟, 타깃 | 목표 |
| 보디 가드, 바디 가드 | 경호원 | 타운 하우스 | 공동전원주택 |
| 보디 라인, 바디 라인 | 체형 | 타이틀 | 제목 |
| 바베큐, 바비큐 | 통구이 | 타이틀 곡 | 주제곡 |
| 바이어 | 구매상 | 타임 캡슐 | 기억 상자 |
| 바캉스 | 휴가 | 탑 클래스, 탑 크라스, 톱 클래스, 톱 크라스 | 정상급 |
| 밸런스, 발란스 | 균형 | 턴키공사 | 일괄 공사 |
| 발레 파킹 | 대리주차 | 테마 | 주제 |
| 방카 슈랑스, 방카 쉬랑스 | 은행연계보험 | 테스터 | 체험 평가자 |
| 버전, 버전 | 판 | 테이블 세팅, 테이블 셋팅 | 상차림 |
| 버튼 | 단추 | 테이블 클로스 | 식탁보 |
| 보너스, 보나스, 보우너스 | 상여금 | 텔레 마케팅 | 전화 판매 |
| 보이스 피싱 | 음성 사기 전화 | 톨 게이트 | 요금소 |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전 | 수정 후 |
|---|-----------|-------------------------------------|----------|
| 뷰 파인더 | 보기창 | 투 잡 | 겉별이 |
| 브이아이피, VIP | 귀빈 | 투어 콘서트 | 순회공연 |
| 브이오디 서비스, VOD 서비스 | 다시보기 | 트레이닝복 | 운동복 |
| 블루 벨트 | 청정수역 | 티오, T/O, TO | 정원 |
| 산악팀워크훈련 | 산악협동훈련 | 파트 타임 | 시간제 근무 |
| 샐러리 맨 | 봉급생활자 | 파트너십, 파트너쉽 | 동반 관계 |
| 샘플링 | 표본 추출 | 파파라치 | 몰래재보꾼 |
| 서클, 씨클 | 동아리 | 팝업 창 | 알림창 |
| 세일즈 | 판매 | 패딩 | 누비옷 |
| 센서, 썬서 | 감지기 | 패스 워드 | 비밀번호 |
| 썬티멘탈리즘, 썬치멘탈리즘 | 감상주의 | 패키지 상품 | 꾸러미 상품 |
| 선루프, 썬루프 | 지붕창 | 패턴 | 유형 |
| 세일, 썬일 | 할인 판매 | 팩시밀리, FAX | 전송 |
| 센티멘탈리즘, 센티멘탈리즘, 센치멘탈리즘, 센치멘탈리즘 | 감상주의 | 팸투어 | 사전 답사 여행 |
| 소트, 썬트 | 정렬 | 퍼레이드 | 행진, 행렬 |
| 스마트 워크 | 원격 근무 | 퍼포먼스 | 공연 |
| 스마트그리드 | 지능형 전력망 | 퍼포먼스 예술 | 행위 예술 |
| 스매싱 | 강타 | 페스티벌 | 축제 |
| 스캔들 | 추문 | 페어 | 박람회 |
| 스케줄, 스케줄 | 일정 | 펜 네임 | 필명 |
| 스크린 도어 | 안전문 | 포스트 잇, 포스트이트 | 붙임쪽지 |
| 스타트 | 출발 | 포커스 | 초점 |
| 스터디 그룹, 스타디 그룹 | 공부 모임 | 포토존 | 사진 촬영 구역 |
| 스타디움 | 경기장 | 폴리스라인 | 통제선 |
| 스타팅 멤버 | 선발(先發) 선수 | 푸드코트 | 음식 매장 |
| 스탠다드, 스탠더드 | 표준 | 프라이버시 | 사생활 |
| 스테이지 | 무대 | 프라이 시간대 | 황금 시간대 |
| 스토리 | 이야기 | 프론티어 | 개척자 |
| 스팟 광고, 스파트 광고, 스팟 광고 스포츠 광고 | 반짝광고 | 플래 카드, 프레 카드, 플랑 카드, 플랭 카드 | 현수막 |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전 | 수정 후 |
|-----------------------|--------|---|--------|
| 스페어 | 여분 | 프러포즈, 프로포즈 | 청혼 |
| 스프레이 | 분무기 | 피니시 | 도착 |
| 슬로건 | 표어, 구호 | 피아르, 피알, PR | 홍보 |
| 시너지 효과 | 상승 효과 | 피엘 상품 PL 상품 | 자체기획상품 |
| 신드롬, 씬드롬 | 증후군 | 피켓 | 팻말 |
| 심결 | 심리 결정 | 픽션 | 허구 |
|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 정체성 | 핀트 | 초점 |
| 아이젠 | 눈길덧신 | 하이 테크 | 첨단 기술 |
| 아젠다 | 의제 | 하이 파이브 | 손뼉맞장구 |
| 아카이빙 | 자료 전산화 | 할리우드 액션, 할리웃 액션, 헐리우드 액션, 헐리웃 액션 | 눈속임짓 |
| 아티스트 | 예술가 | 히려인 | 직통 회선 |
| 앙케트, 앙케이드, 앙케이트 | 설문 조사 | 핫 이슈 | 주요 쟁점 |
| 엑기스, 액끼스, 엑기스, 액끼스 | 진액 | 핸드 폰 휴대 폰 | 휴대 전화 |
| 액제 | 물약 | 핸드 프린팅 | 기념손짜기 |
| 엠블런스, 엠블란스, 엠블런스 | 구급차 | 히트를 치다 | 인기를 얻다 |
| 앰프 | 확성기 | 히려인 | 직통 회선 |
| 어시스트 | 도움 | | |

한자어는 우리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통을 가로막는다. 순우리말이나 좀 더 쉬운 한자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에서 난해한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의 목록과 권장 표현을 제시한다. 더불어 앞서 밝힌 한글 프로그램의 자동 변환을 위해 목록화한 순화어 중 한자어 및 일본어 투와 관련된 어휘들의 목록을 함께 제시한다.

| 순화 대상 용어 | 순화어 | 순화 대상 용어 | 순화어 |
|----------|--------------|----------|-----------|
| 가건물 | 임시 건물 | 비육우 | 고기소 |
| 가건축 | 임시 건축 | 사고다발지역 | 사고 잦은 곳 |
| 가검물 | 검사 대상물 | 사양 조건 | 품목 조건 |
| 가결의 | 임시 결의 | 삽목 | 꺾꽂이 |
| 가계약 | 임시 계약 | 삽식 | 꺾꽂이 |
| 가계정 | 임시 계정 | 생계비 | 생활비 |
| 가금류 | 사육조류 | 생존중에 | 살아 있는 동안에 |
| 가내시 | 사전 통보 | 석식 | 저녁밥 |
| 가매장 | 임시 매장 | 소류지 | 눔지대 |
| 가설 무대 | 임시 무대 | 소맥 | 밀 |
| 가수용 | 임시 수용 | 소맥분 | 밀가루 |
| 가일층 | 한층 더 | 소맥피 | 밀기울 |
| 가접수 | 임시 접수 | 소택지 | 눔 |
| 가제목 | 임시 제목 | 시건 | 잠금 |
| 가지정 | 임시 지정 | 시건 장치 | 잠금장치 |
| 간석지 | 개펄 | 시말서 | 경위서 |
| 개서(開署)하다 | 신설하다 개설하다 | 시방서 | 설명서 |
| 갱의실 | 탈의실 | 시운전 | 시험운전 |
| 거년 | 지난해 | 여입 결의 | 회수 결정 |
| 거래선 | 거래처 | 여입금 | 회수금 |
| 거마비 | 교통비 | 연면적 | 총면적 |
| 거소 | 사는 곳 | 엽연초 | 잎담배 |

| 순화 대상 용어 | 순화어 | 순화 대상 용어 | 순화어 |
|----------|----------|----------|------------|
| 견출지 | 찾음표 | 예가 | 예정 가격 |
| 경구 투여 | 복용 | 예산지변과목 | 예산 과목 |
| 경의실 | 탈의실 | 예하기관 | 소속 기관 |
| 계육 | 닭고기 | 우육 | 쇠고기 |
| 계출 | 신고 | 육묘 | 모기르기 |
| 계출서 | 신고서 | 육우 | 고기소 |
| 고가차 | 사다리차 | 윤화 | 교통사고 |
| 고수 부지 | 둔치 | 음용수 | 먹는 물 |
| 고참 | 선임자 | 익년 | 다음 해 |
| 공란 | 빈칸 | 익년도 | 다음 해 |
| 공사다망 중 | 바쁘신 가운데 | 익월 | 다음 달 |
| 과년도 | 지난해 | 익일 | 다음 달 |
| 과당 경쟁 | 과열 경쟁 | 일부인 | 다음 날 |
| 구릉 | 언덕 | 일용 잡급 | 일용직 |
| 구휼 | 구호 | 일조 점호 | 아침 점호 |
| 근일 | 요사이 | 입방 미터 | 세제곱미터 |
| 금번 | 이번 | 잔전 | 잔돈 |
| 급부금 | 지급금 | 장거 | 자랑스러운 거사 |
| 깍연 | 흡연 | 절취선 | 자르는 선 |
| 낙뢰 | 벼락 | 점객 | 방문자를 모으는 일 |
| 내구 연한 | 사용 가능 연한 | 제고(提高)하다 | 높이다 |
| 내역서 | 명세서 | 조식 | 아침밥 |
| 노견 | 갓길 | 준용 하천 | 지방 관리 하천 |
| 노후시설 | 낡은 시설 | 중식 | 점심(밥) |
| 다년생 | 여러해살이 | 진균 | 곰팡이 |
| 담수어 | 민물고기 | 차면 시설 | 가리개 |
| 대합실 | 맞이방 | 차압 | 압류 |
| 도선장 | 나루터 | 채증 | 증거 수집 |
| 돈육 | 돼지고기 | 척사 대회 | 웃놀이 대회 |
| 매점매석 | 사재기 | 첨부 | 붙임 |
| 목산 | 눈썹 | 출감 | 출소 |
| 미싱 | 재봉틀 | 층고 | 층높이 |
| 바란스 | 균형 | 타액 | 침 |
| 별첨 | 붙임 | 토괴 | 흙덩이 |
| 보당 | 단추 | 팽윤(膨潤)하다 | 붓다 |

| 순화 대상 용어 | 순화어 | 순화 대상 용어 | 순화어 |
|----------|--------|----------|-------|
| 복명서 | 결과 보고서 | 편취하다 | 빼앗다 |
| 부불금 | 할부금 | 피체되다 | 붙잡히다 |
| 부식토 | 썩은 흙 | 피혁 | 가죽 |
| 분묘 | 무덤 | 행락철 | 나들이철 |
| 불원간 | 머지않아 | 협조건 | 협조문 |
| 불입 자본 | 납입 자본 | 환금 작물 | 수익 작물 |
| 불입 | 납입 | 횡서 | 가로쓰기 |
| 불철주야 | 밤낮없이 | 흉위 | 가슴둘레 |

03

외국어와 한자어 사용 시 유의할 점

- 1) 한글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
- 2) 한글로 표기하고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
- 3) 외국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
- 4) 기관명, 조직명 전문용어 등의 영문 머리글자만을 따 표기한 경우
- 5) 한자어에서 머리글자만을 따 표기한 경우

1. 한글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

교정 전

- 격을 갖추게 되었다.
- 對일본 수출액
- 소개, 수여, 토의 順으로 진행된다.
- 兩 노총
- 前 대통령
- 지역 인재가 他 지역으로
- 공상(公傷) 공무원
- 대북 억지력(抑止力) 제고를 위해
- 수용시설 불비(不備)
- 정주(定住) 환경의 경우

교정 후

- 격을 갖추게 되었다.
- 대일본 수출액
- 소개, 수여,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 양 노총
- 전 대통령
-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 공상 공무원
-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
- 수용시설 불비
- 정주 환경의 경우

2. 한글로 표기하고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

교정 전

- 神을 맞는 절차, 神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 神을 보내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 공이 큰 신하의 신주를 모신 공신당으로
- 양국간의 우의와 국격을 제고하는 기회
- 주 1회 이상 예찰 실시
- 현장훈련, 도상훈련을 평가한다.
-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 사의를 표명했다.
- 올바른 세정 문화 정착
- 스마트 시정을 지향하는
- 법무부 장관의 식사와 내빈들의 기념사
- FTA 발표국으로 진출 시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여왕을 예방하고
- 시가전이 발생하는 등 정정불안을 겪고 있다.
- 각 절차마다 편경, 복고 등 전통 악기

교정 후

- 신(神)을 맞는 절차, 신(神)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 신(神)을 보내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 공이 큰 신하의 신주를 모신 공신당(功臣堂)으로
- 양국간의 우의와 국격(國格)을 제고하는 기회
- 주 1회 이상 예찰(豫察) 실시
- 현장 훈련, 도상(圖上) 훈련을 평가한다.
-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봉행(奉行)하고 있다.
- 사의(謝意)를 표명했다.
- 올바른 세정(稅政) 문화 정착
- 합리적인 시정(市政)을 지향하는
- 법무부 장관의 식사(式辭)와 내빈들의 기념사
- FTA 발표국으로 진출 시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여왕을 예방(禮訪)하고
- 시가전이 발생하는 등 정정(政情) 불안을 겪고 있다.
- 각 절차마다 편경(編磬), 복고 등 전통악기

3. 외국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

일부 전문 용어나 약자를 외국어로 그대로 표기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바꾸어 한글로 표기한 후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이 좋음.

교정 전

- AP
- Bottom-up방식
- LED
- LNG
- Top-down방식
- T/F
- Think-Tank역할
- QR코드

교정 후

- 무선인터넷 공유기(AP)
- 하의상달형(Bottom-up) 방식
- 발광다이오드(LED)
- 액화천연가스(LNG)
- 상의하달형(Top-down) 방식
- 특별 팀(Task force)
- 두뇌 집단(Think-Tank) 역할
- 정보 무늬(QR)

4. 기관명, 조직명, 전문용어 등의 영문 머리글자만을 따 표기한 경우

외국어로 된 전문 용어나 약어를 그대로 보도 자료에 드러내면 일반 국민들이 보도 자료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우리말로 풀어 써 주고, 외국어 전문 용어는 그 원어와 함께 괄호 안에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 교정 전 | 교정 후 |
|---------|---|
| • ADEX | •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Aerospace & Defence Exhibition) |
| • AI | •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
| • HPAI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 • ADD | • 국방과학연구소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 • ASEAN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 • CSR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 • EU |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
| • FDA | • 식품의약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 FTA |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 • GDP | •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
| • ICT | •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 • IPCC | •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 • JSA | •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

교정 전

- KOSIS
- MAS
- MOU
- NGO
- ROTC
- R&D
- SNS
- SOC
- TOE
- UN
- UNIST
- UEP
- WTF

교정 후

-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 Multiple Award Schedule)
-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학생군사교육단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연구 개발
(R&D, Research and Development)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
- 사회간접자본
(SOC, Social Overhead Capital)
- 석유 환산톤
(TOE, Tonnage of Oil Equivalent)
-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
- 세계태권도연맹
(WTF, World Taekwondo Federation)

5. 한자어에서 머리글자만을 따 표기한 경우

한자어의 머리글자만을 따서 약어로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해당 용어를 모르는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딴말을 병기하여야 함.

교정 전

- 전작권
- 비대위
- 인권위

교정 후

- 전작권(전시 작전 통제권)
-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보도 자료 쓰기



04

/ <부록>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해 도움 받을 곳

공공언어

01

국립국어원 발간 자료

-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책자
 - ‘공문서 쓰기 길잡이’ 책자
 -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책자
 - ‘가나다 전화에 물어보았어요’ 책자
- ※ 자료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
또는 공공언어지원단에 신청하면 책자로 받아볼 수 있음.

02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korean.go.kr> 이용

- 표준국어대사전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국어사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국립국어원 누리집 → 찾기 마당 → 표준국어대사전 찾기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순화어 찾기
 - 지금까지 다듬어 놓은 말을 찾아볼 수 있음.
 - 국립국어원 누리집 → 찾기 마당 → 순화어
(http://www.korean.go.kr/09_new/dic/word/word_refine.jsp)
- 온라인 가나다
 - 온라인 게시판에 국어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음.
 - 국립국어원 누리집 → 질의응답 → 온라인 가나다
(http://www.korean.go.kr/09_new/minwon/qna_list.jsp)
- 공공언어 지원
 - 공공기관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국립국어원 누리집 → 공공언어 지원
(<http://www.korean.go.kr/publang>)

03

국어문화원

| 문화원명 | 문화원 전화 | 문화원 홈페이지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 033-250-8137 | www.koreancontest.org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309-1호 | 200-701 |
|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 033-250-8137 | kcc.kangwon.ac.kr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인문대 2호관 309-1호 | 200-701 |
|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 053-950-7498 | knukorean.knu.ac.kr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교수연구동 309호 | 702-701 |
|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 055-772-0761 | ckc.gnu.ac.kr |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101동 220호 | 600-701 |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02-735-0991 | www.barunmal.org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3단지 415호 | 110-872 |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 051-200-7180 | korean.donga.ac.kr |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113호 | 604-714 |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 041-550-5391 | smkorean.net | 충남 천안시 안서동 300번지 상명대학교 송백관 212호 | 330-720 |
|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053-810-3561 | ccrk.yu.ac.kr |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도서관 1206호 | 712-749 |
|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 052-259-1911 | uoukorean.ulsan.ac.kr | 울산광역시 남구대학로 102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206-1호 | 680-749 |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 02-3277-3250 | munjang.net |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대 학관 308호 | 120-750 |

| 문화원명 | 문화원 전화 | 문화원 홈페이지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062-530-0313 | kor.chonnam.ac.kr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 사범대학 1호관 305호 | 500-757 |
|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063-220-3095 | korean.jj.ac.kr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교수연구동 802호 | 560-759 |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064-754-2712 | malgeul.jejunu.ac.kr | 제주시 제주대화로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층 8204호 | 690-756 |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043-229-8311 | www.koreanlab.or.kr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36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7호 | 360-764 |
|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 043-261-3450 | korean.chungbuk.ac.kr | 충북 청주시 성봉로 410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418-1호 | 361-763 |
|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042-629-7474 | urimal.hnu.kr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관 305호 | 306-791 |
|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 02-781-3854 | korean.kbs.co.kr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팀 | 150-790 |
|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 031-400-5312 | www.hkli.hanyang.ac.kr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번지 국제문화대학 | 426-791 |
|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 032-860-7845 | www.inhakorean.or.kr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3번지 인하대학교 서호관 438호 | 402-020 |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 〈 신청 방법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문의 〉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1) 공무원 및 일반인반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2) 교사반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 지정됨.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강사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함.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새터민 발음 교육’ 등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기획 · 편집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 | |
|-----|---|
| 인쇄 | 2011년 12월 26일 |
| 발행 | 2011년 12월 30일 |
| 발행인 | 권재일 |
| 발행처 | 국립국어원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
| 누리집 | http://www.korean.go.kr |
| 전화 | (02)2669-9725 |

